요한복음 이야기

빛과생명의복음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A Story of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OSPEL OF THE LIGHT AND LIFE

DONG-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04

20-10 Beonyeong 8-gil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머리말

'빛'과 '생명'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빛과 생명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능력 곧 변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둠이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긍정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위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 엄청난 변화를 말합니다. 수가성의 어떤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변화된 새 삶을 체험하였으며, 그녀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고,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목적하는 곳에 무사히 도달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변화를 소위 모형론(typology)이란 방법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모세와 율법은 예수님과 복음의 그림자이며, 모세와 율법은 어둠과 죽음을, 예수님과 복음은 빛과 생명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빛과 생명으로 상징되는 새 시대를 위한 변화를 강조하는 것들이면서 모세의 표적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데(요 2:1-11), 이 표적은 유익하고 건설적인 변화, 분위기 쇄신의 의미를 갖습니다.

2.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요 4:46-54). 유대인 니고데모, 사마리아인 여성, 이방인 왕의 신하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중생의 체험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중생이 남녀노소, 민족,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음을 보여줍니다.

3.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요 5:1-18). 이 표적의 특징은 복음적 사고(思考), 창조적 사고, 살림과 열림의 사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며, 언제나 살림의 일을 하십니다.

4.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빈들에서 13세 이상의 남성만 오천 명을 먹이십니다(요 6:1-15).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가루통과 기름병의 가루와 기름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않게 한 표적들의 원형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5.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요 6:16-21). 이 표적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6. 예수님은 타고난 맹인을 고치십니다(요 9:1-7).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7.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요 11:17-44). 예수님은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 생명을, 슬픔에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심오하고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장당 2-4개씩 총 52개의 강해설교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들 설교들은 현대 신학자들이 발견한 새로운 내용들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함은 물론이요 신앙인들의 삶에 아주 유용한 빛과 생명의 복음을 주제로 한 실천적 삶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한민대학교 강의실에서와 빛과 생명교회에서 주일오후예배시간에 선포되었던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물론이고 신학생과 평신도에게도 크게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2004년 1월 24일
황산벌 연구실에서 조동호

차례

머리말 ····· 3
제 1주 새 시대를 위한 요한복음의 메시지(요 1:1-28) ····· 7
제 2주 와 보라(요 1:29-51) ····· 11
제 3주 새 시대를 위한 변화(요 2:1-11) ····· 15
제 4주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요 2:12-25) ····· 19
제 5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요 3:1-15) ····· 23
제 6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요 3:16-36) ····· 27
제 7주 예수를 믿는지라(요 4:1-45) ····· 31
제 8주 새 시대를 위한 믿음과 중생(요 4:46-54) ····· 35
제 9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적 사고(思考)(요 5:1-18) ····· 39
제10주 살림의 복음(요 5:19-47) ····· 43
제11주 새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요 6:1-15) ····· 47
제12주 새 시대를 위한 예수님 영접(요 6:16-21) ····· 51
제13주 하나님의 일(요 6:22-40) ····· 55
제14주 새 시대를 위한 해원병(요 6:41-71) ····· 59
제15주 왜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요 7:1, 25-36) ····· 63
제16주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요 7:2-24) ····· 67
제17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 7:37-53) ····· 71
제18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1-11) ····· 75
제19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12-59) ····· 79
제20주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요 9:1-11) ····· 83
제21주 새 시대를 위한 세상의 빛(요 9:12-41) ····· 87
제22주 나는 선한 목자라(요 10:1-21) ····· 91
제23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22-42) ····· 95
제24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요 11:1-16) ····· 99
제25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 11:17-57) ····· 103
제26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요 12장) ····· 107
제27주 향유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 12:1-11) ····· 111

제28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요 12:12-19) ····· 115
제29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요 12:20-50) · 119
제30주 가문의 영광(요 13:1-33) ····· 123
제31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 13:34-38) ····· 127
제32주 길, 진리, 생명(요 14:1-15) ····· 131
제33주 보혜사 성령(요 14:16-18) ····· 135
제34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19-31) ····· 139
제35주 포도나무와 가지들(요 15:1-8) ····· 143
제36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요 15:7-25) ····· 147
제37주 진리의 성령(요 15:26-27) ····· 151
제38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1-33) ····· 155
제39주 보혜사는 누구인가?(요 16:7-11) ····· 159
제40주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요 17:1-20) ····· 163
제41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요 17:21-26) ·· 167
제42주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요 18:1-32) ····· 171
제43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요 18:33-37) ····· 175
제44주 진리가 무엇이냐?(요 18:38-40) ····· 179
제45주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더라(요 19:1-16) ····· 183
제46주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요 19:17-37) ····· 187
제47주 예수님의 가상칠언(요 19:25-30) ····· 191
제48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요 19:38-42) ····· 195
제49주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는 교훈(요 20:1-10) ····· 199
제50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요 20:11-18) ····· 203
제51주 예수부활의 증거(요 20:19-31) ····· 207
제52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25) ····· 211

제1주
새 시대를 위한 요한복음의 메시지
(요 1:1-28)

1장 1절에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Logos)를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540?~? B.C.)는 이 로고스를 "변화의 주체자이면서 스스로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고스가 빛과 생명,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끝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듯이 성질은 변치 않고 형태만 변하는 물리적 변화가 있는가하면,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경우처럼 형태뿐 아니라, 성질까지 변하는 화학변화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질서에서 혼돈에로 생명에서 죽음에로 극대화되는데, 이 법칙을 엔트로피(entropy) 또는 열역학2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은 혼돈과 죽음의 법칙입니다. 율법도 여기에 속합니다.

누구도 이 자연의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 때 꽃다운 청춘이라도 노인이 되는 물리적 변화를 거쳐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화학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하면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도 솔로몬처럼 만물의 끝없는 변화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를 벗은 불변의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진리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말하는 로고스는 우리말로 '법칙' 또는 '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법칙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서도 스스로는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해석하면서 변증법적

‘도리’나 ‘법칙’을 뛰어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으며, 만물의 근원이시며, 유한한 존재요, 끝없이 변하는 우리에게 영생과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Logos)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세월은 가고 변해도 그 변화의 원리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로고스, 끝없이 변하는 굴레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이 혼돈을 질서로, 흑암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에로 변화시키는 힘이요 권능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전반부의 내용은 변화 또는 회개가 주제입니다. 변화와 회개는 동의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에서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를 뜻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새 천년시대가 열렸다’ ‘교회시대가 열렸다‘의 의미를 함축합니다.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회개’한 사람, ‘변화’된 사람뿐입니다.

요한은 이 변화를 소위 모형론(typology)이란 방법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모세와 율법은 예수님과 복음의 그림자이며, 모세와 율법은 흑암과 죽음을, 예수님과 복음은 빛과 생명을 뜻합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의 특징은 숫자 7에 있습니다. 이 숫자 7은 빛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숫자 6은 모세와 율법, 곧 마이너스 1(-1)를 상징하며, 숫자 8은 예수님과 복음, 곧 플러스 1(+1)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빛과 생명으로 상징되는 새 시대를 위한 변화를 강조하는 것들이면서 모세의

표적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비교를 시켜 보겠습니다.

1. 새 시대를 위한 변화(요 2:1-11). 예수님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데, 이 표적은 유익하고 건설적인 변화, 분위기 쇄신, 넘친다(+1)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물을 피로 변화시켰는데(출 7:14-24), 그의 표적은 해를 끼치는 파괴적 변화, 분위기 침체, 또는 부족하다(-1)는 의미를 갖습니다.

2. 새 시대를 위한 믿음과 중생(요 4:46-54).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유대인 니고데모, 사마리아인 여성, 이방인 왕의 신하한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중생의 체험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중생이 남녀노소, 민족,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축을 죽게 하는 표적을 행합니다(출9:1-9). 이 두 표적의 특징은 주인이 직접 축복이나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물이 받는다는데 있습니다.

3. 새 시대를 위한 복음적 사고(요 5:1-18).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표적은 개인의 고통을 고친 첫 번째 표적에 해당합니다. 이 표적에서 나타난 특징은 복음적 사고(思考), 유신론적 창조사고, 살림과 열림의 사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살림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몸에 독종이 나게 한 표적을 행하였습니다(출 9:8-12). 이 역시 몸에 고통을 준 첫 번째 표적에 해당합니다. 이 표적의 특징은 율법적 사고(思考), 무신론적 파괴적 사고, 죽임과 닫힘의 사고와 죽임의 일에 있습니다.

4. 새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요 6:1-15).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빈들에서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십니다.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가루통과 기름병의 가루와 기름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않게 한 표적들의 원형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인들에게 메뚜기 재앙(출 10:1-20)을 내림으로써 기근을 촉발시킵니다.

5. 새 시대를 위한 예수 영접(요 6:16-21).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이 표적의 특징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에 뇌성과 우박의 재앙, 곧 자연재해(출 9:13-15)를 내리게 합니다.

6. 새 시대를 위한 세상의 빛(요 9:1-7). 예수님은 타고난 맹인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에서 흑암재앙(출 10:22-23)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7.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요 11:17-44).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죽음에 생명을, 슬픔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에서 장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출 11-12장). 생명에 죽음을, 기쁨에 통곡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혼돈을 질서로, 흑암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2주
와 보라
(요 1:29-51)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 곧 '로고스'(Logos)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로고스'란 변화의 주체자로서 본래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말합니다(1:1-4).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흑암과 혼돈과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이란 뜻입니다. 변화의 주체자로서 로고스 예수님은 흑암에 빛을, 죽음에 생명을, 혼돈에 질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격자들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1:12).

이 로고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입으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으며, 이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 가져다주신 분이셨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연이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1:14-16).

'영접'과 '믿음'은 요한복음 전체 스토리의 주제일 뿐 아니라,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힘입니다(3:15-18).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변화된 삶을 체험하였으며, 그녀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4:5-42).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고(4:46-54),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함으로써 구원함을 받고 건너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6:21).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는 계시(啓示)의 빛이시오(1:18),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이시며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14:6). 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1:29)이시오, "성령으로 세례"(1:33)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사명이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의 중요 어휘들 가운데 하나인 "와 보라"(Come and you will see, 1:39)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2,600년 전 바벨론 제국에 나라를 빼앗긴 이후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요 6:14,26,30; 마 12:38, 16:1 등), 제국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독립 국가를 세워줄 모세나 엘리야 또는 다윗 왕과 같은 큰 인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중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해서 광야로 그를 보려고 나아갔고, 통치자들은 첩보원들을 파송하여 그가 메시아인가를 알아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1:19).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이 찾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1:34)과 "하나님의 어린양"(1:29)으로 소개할 사명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스스로 자중하여 예수님이 누려야할 메시아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회개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며(1:26), 오히려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샌들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겸손해 하였습니다(1:27). 이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곧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에게 소개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1:35-40).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세례 요한의 목적과 사명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연결시키는 전도의 일

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1:41)고 말하고,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이때였습니다. 초대교회 설립의 열쇠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형제 안드레의 전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빌립을 전도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1:46)고 빌립에게 반문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 때 빌립은 물러서지 않고 "와 보라"(Come and see, 1:46)는 강한 어투로 강권하였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인도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와 보라"(Come and see). 이 말은 매우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전도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셨고, 제자들도 사용했던 전도용어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처럼 "와 보라"는 전도활동이 선행되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생기게 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에서 변화의 능력인 믿음을 강조하였는데, 그러기에 앞서 제1장에서 전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 주목되어야할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고, 14-15절에서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

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하는 것이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일임을 말해 줍니다.

효과적인 전도방법 :

1. 가정과 이웃에서의 접촉
2. 친구와 직장 동료와의 접촉,
3. 가정 방문을 통한 접촉

요령 :

1) 기도로 준비, 성령과 함께
2) 대상을 정하고 정보를 얻는다.
3) 편안한 마음과 자세로 대화
4) 좋은 상황을 잘 포착, 유도
5)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혼자만 말해서는 안 된다.

조심 :

긴장을 피하고, 조급히 결신을 구하지 말고, 논쟁을 피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불필요한 주제들을 피하고, 상대가 주제를 바꾸려 할 때 끌려가지 말라.

제3주
새 시대를 위한 변화
(요 2:1-11)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낡고 묵은 것을 대신할 새 질서 곧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이며, 기독교가 새 시대를 위한 새 질서임을 밝힌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 담긴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먼 옛날 모세가 물을 피로 변화시킨 것(출 7:14-24)에 비교되는 표적입니다. 바로 왕과 이집트인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세가 그 하나님이 보낸 히브리 민족의 선지자요 인도자란 사실을 입증해 보인 첫 표적이 물을 피로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은 죄의 억압과 현실의 고통에서 인류를 구원키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메시아요 구원자란 사실을 입증해 보인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파괴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건설적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모세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옛 시대의 상징인 율법은 지키기가 어렵고 억압적이며 비판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부정적이고 수동적이며 폐쇄적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고 무거운 멍에를 지웁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꾼 재앙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마 5-7장). 새 시대의 상징인 복음은 지키기가 쉽고 자유로우며 실질적이고 포용적이며 건설적입니다. 또 복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개방적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멍에를 가볍게 해줍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큰 기쁨을 선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물을 피로 바꾸듯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듯이 파괴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창조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옆구리에 창 찔림을 받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어 무덤에 갇히신 후에 부활하신 것에 비교됩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목적이 능력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때'와 '때가 이미 이른 후'로 나누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부활의 때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만드신 포도주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피(19:34)를 상징하는 것이자 또한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2장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에 아주 민감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할 때와 영광을 받아야 때에 민감하셨습니다. 떠나보내야 할 시대와 새로 맞이해야 할 시대에 민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물을 옛 시대나 율법시대 또는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무덤과 죽음을 상징했고, 포도주는 복음시대나 은혜시대 또는 죽었지만 다시 사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새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였습니다.

셋째, 모세로 상징되는 옛것은 인간에게 만족이나 기쁨이나 평안을 줄 수 없는 부족하고 무기력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새것은 인간에게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넉넉하고 넘치는 능력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옛것의 상징은 '부족함'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의 "포도주가 모란다"는 말씀에서와 같이 혼인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에 손발을 씻는 종교의식에 필요한 물을 담았던 돌 항아리도 '부족함'을 상징하는 숫자 6(-1)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에 지배되는 옛것과 세상 것에는 인간을 복되게 하거나 참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으로 상징되는 옛것은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서 보여주는 상징은 기쁨과 넉넉함과 최상의 품질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8-16절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베푼 기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기적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베푼 첫 번째 기적이었으며,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여인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한 말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볼 때, 예

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엘리야가 가루와 기름을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도록 한 기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천국잔치를 상징적으로 보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축제의 분위기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줌으로써 더욱 기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있을 천국잔치의 "때"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넉넉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잔치분위기의 천국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고, 넉넉함을 주실 수 있고, 천국생활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오고 있는 시대를 자기의 때로 만드는, 미래를 자기의 때로 만드는 성공적인 삶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옛것으로 상징되는 물은 무색 무미 무취하고 변화가 없지만, 새것으로 상징되는 포도주는 짙은 색깔과 향과 훌륭한 맛과 상품가치가 높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실 뿐 아니라, 질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물처럼 흔한 인생, 가치없는 인생도 일단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포도주처럼 색깔과 향이 짙고, 고급스런 맛과 품위 있는 인생으로 변모합니다.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제4주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요 2:12-25)

요한복음의 특징들 가운데 한 가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명절 때마다 특히 유월절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기록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곳(=십자가에 죽으실 곳)이 예루살렘성이요, 그 때가 유월절절기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1:29)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공생애기간을 3년 6개월로 산정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방문 사실을 많이 보도하지 아니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사실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기간을 가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멀리서 찾아온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환전상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밖으로 내쫓으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머물러야할 신성한 곳이었지만, 오히려 지배자들의 배만 불리는 폭리와 착취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고 견고한 성전에 가두어 놓고, 613개 율법과 39개 바리새인 법으로 민중을 억압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시대의 상징인 성전시대가 끝나고 복음시대 곧 교회시대로 거듭나야할 것을 아시고, 이곳에서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단 한번의 화목제물(=선물)이 되실 시기(=영광 받으실 때)를 가늠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유

월절절기 때마다 350리 길을 도보로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후 26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46년째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주전 20년에 시작돼서 주후 64년 그러니까 84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불행하게도 주후 70년에 모든 작업이 완료된 지 불과 6년 만에 로마군대의 침공으로 철저하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오랜 세월에 걸쳐 웅장하게 건축된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2:19)고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좋게 보았을 리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21절의 부언설명대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였습니다(2:22).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성격을 띤 과격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늘로써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연관된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적지 않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늘로써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한 성구로써는 마태복음 12장 38절, 16장 1절, 마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6절 등이 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4절, 누가복음 11장 29절 등에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까지도 유대인은 표적을 찾는 자들임(고전 1:22)을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마 11:7-9). 예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두고 하

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해서 광야에 나갔던 것입니다. 민중뿐 아니라, 지배자들의 첩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려 하였습니다(1:19-28).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고, 메시아임을 증명할 그 어떤 표적도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독특한 기적들을 "표적"이란 말로써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할 표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오매불망하며 기다렸던 하늘로써 내린 표적들이었음을 웅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하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12:37).

'표적'이란 말은 본래 하나님의 큰 능력, 곧 기적 행함으로 나타난 결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서 보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고치자 그 결과로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결과로 믿은 자가 13세 이상의 남자만 오천 명에 이른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행 4:4).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쓰인 경우에는 '표적'이란 말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능력 행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든지, 사렙다 과부의 집의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과 같은 기적을 말합니다. 이 기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6장에 소개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따라서 표적을 구했다든지, 표적을 행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자 메시아란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조차도(2:23)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보다는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막 8:33).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6:26)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속성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2:24)고 하였고,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2:25)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 해도 그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보다는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거나 사람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라고 물었던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오늘날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일
1)어둠의 일, 2)질서를 깨는 일, 3)죽임(사망)의 일
4)먹고 배부르기 위한 일(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일
1)빛의 일, 2)질서를 잡는 일, 3)살림(생명)의 일,
4)복음의 일(예수님을 믿는 일과 소개하는 일)

제5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요 3:1-15)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인을 대표하여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사마리아인을 대표하여 우물가 여인과 이방인을 대표하여 헤롯 안디바의 신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유대인입니다. 결국 유대인, 반절 유대인, 이방인이 순서대로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니고데모는 구원문제와 영혼문제, 우물가 여인은 인생문제와 예배문제, 왕의 신하는 죽음문제와 질병문제를 해결 받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영혼구원이 필요했고, 사마리아인에게는 심령(정신과 윤리도덕)구원, 왕의 신하에게는 육체구원이 절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에게서 나타난 영혼구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5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3:2).

어둠이 깔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빛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면 밝은 세계를 볼 수 있듯이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오랜 세월 율법에 짓눌려 뜰 수 없었던 영안을 떴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그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3:3).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3: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3:5-8). 니고데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3: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3:10-15).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준비된 밭에다 천국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13개 율법과 39개의 바리새인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야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3:2),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3:2), 남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신 분(3:2), 성령으로 나신 분(3:8), 본 것대로 증언하신 분(3:11),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3:13), 하늘에 올라가신 분

(3:13),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3:15).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긍정적인 변화의 주체자란 점이 그가 행하신 표적들에서 입증됩니다. 니고데모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의 일과 영의 일, 육으로 난 사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3:5)고 하셨는데, 이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씀하신 것으로 영의 일, 하늘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받아야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교회창립 때에 베드로는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행 2:38).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후에 시행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정란이 먼저 만들어져야 출산이 가능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수정란에, 세례를 출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사랑에, 세례를 혼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출산보다는 수정, 혼인보다는 사랑 그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무리 중요하고, 수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혼인이나 출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부로써 또는 한 인간으로 출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정란을 생명체로 인정하여 낙태를 금하듯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

다고 해도 수정란이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되어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이 무시 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과정 또한 귀하고 소중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세례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한 과정입니다. 수정으로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듯이 믿음으로부터 세례까지의 과정 또한 그러합니다. 출산을 통해서 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 완전한 인간에로의 성장을 시작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나 양육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축복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세례는 별개의 것이거나 어느 것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구원의 한 과정 속에 있는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에 의한 행위이자,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세례는 신뢰의 믿음에서 신실한 믿음에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입니다. 복중의 태아를 험한 세상에로 내보는 것이 출산이듯이. . . .

무엇보다도 믿음에서부터 세례까지 모든 구원과정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통하여 세례 때에 주어진다고 말합니다(갈 3:2-5; 행 2:38; 딛 3:5-7; 엡 4:4-5; 골 2:12; 벧전 3:21). 그러므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6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요 3:16-36)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전능한 신(神)임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이 필연적으로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이니,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다면, 신(神)이지 피조물일 수 없으므로 인간은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부족한 존재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나 동식물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체로 만드시고, 그에 걸맞게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사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잘못에 대한 삯으로 죽음을 언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고 하였고,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우발적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까지라도 그 모든 결과를 아심으로 인간을 만드실 즈음에 또한 중대한 결정을 해두셨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신학자 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선택과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신에게는 버림과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저주와 죽음을 받아야할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신에게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예정하셨고, 자신에게는 인간과의 사귐을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몫을 자기가 취하는 대신 자기의 몫,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인간을 높이기로 결정하셨습

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17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변화의 내용은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되고, 부정이 변하여 긍정이 되고, 멸망이 변하여 영생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가치 있는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파장(罷場)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신비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변화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결과 또는 믿음의 결과는 영생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20:30). 따라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3:18)고 하였습니다. 평결(verdict)의 내용 곧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3:19)고 한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악하면 어둠을 사랑하고(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진리를 좇는 자는 빛을 사랑합니다(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 싶어서, 3:20-21).

요한복음 1장에 이어서 3장 22-30절까지 에서는 세례 요한이 침례 문제와 함께 재차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보다 큰 자란 칭찬을 들었던 분입니다(마 11:7-11). 세례 요한은 과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고(3:22-26), 자기 위치와 역할을 알았으며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3:27-30). 또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였으며(3:27-30),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명을 감당하였습니다(3:27-30).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3:26)고 고하였습니다. 그 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3:27-30)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였고, 민중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기도 제자도 모두 예수님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조금도 동요치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1:34)과 "하나님의 어린양"(1:29)으로 소개할 사명을 가진 전도자로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중하여 예수님이 누려야할 메시아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회개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며(1:26), 오히려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샌들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겸손해 하였습니다(1:27). 이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1:35-40).

이러한 점들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들입니다. 요한은 현대인들에게 전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일깨워주는 사표(師表)가 되고 있습니다.

3장 31-36절까지 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 보고 들은 것을 증거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3:31-32)고 하였습니다.

또 이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를 받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3-36절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제7주
예수를 믿는지라
(요 4:1-45)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긍정적인 변화의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표적들과 그분이 전해준 율법이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들이었고, 옛 시대(율법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베풀었던 표적들과 그분이 전해준 복음은 새 시대(복음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거나 옛 질서와 새 질서, 또는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2장에서 옛 성전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되는 새 성전이 대조되었고, 제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와 하늘에서 오신 선생 예수님이 대조되었으며, 제4장에서는 야곱의 우물이 주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대조되었고, 유대인이 정통성을 주장하는 예루살렘성전 예배나 사마리아인이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리심산 예배와 같이 장소에 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예배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성전, 참 선생,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할 것입니다. 참 성전은 인간이 지은 예배당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참 선생은 종교지도자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긍정적인 변화의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것을 전해 받은 사도들의 말씀, 곧 신약성경 속에 있습니다. 참 예배는 예루살렘성전(A.D. 70년에 로마제국에 완파됨)

이나 그리심산성전(400 B.C.경에 세워졌으나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128 B.C.에 완파됨)과 같은 어떤 장소에 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변화와 관련해서 물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회개의 침례였습니다(1:26;31,33).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아래 베풀었던 침례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침례는 새 시대인 교회시대(=은혜시대와 성령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베풀어진 침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침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들 침례가 회개를 위한 것이었다면(마 3:11),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침례는 믿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제2장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2:1-11), 제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예수님이 산 물, 곧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라 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의 물에서 그의 건강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6:16-21).

제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은 결례(潔禮) 곧 죄 씻음을, 그리고 포도주는 살림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제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의 물은 중생의 씻음을, 제4장 사마리아 여성과의 대화에서의 물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不淨)하고 불결한 자들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4:9). 제5장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치유의 씻음, 그리고 제6장 갈릴리호수의 물은 구원의 씻음을 상징합니다.

이들 물에 대한 언급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수반될 때 비로소 물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되게 한 능력입니다. 제3장에서도 니고데모의 믿음이 전제(前提)된 후에 거듭남의 신비가 밝혀집니다. 제4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4:39),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고(4:42), 제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6장 갈릴리호수에서는 풍랑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물(=침례)이 분명하게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침례)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물(=침례)에 사람을 구원하는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두 나라로 갈라선 때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722 B.C.년에 앗수리아제국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앗수리아제국은 침략 후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만 본토에 남겨놓고 유식하고 재산이 많은 자들은 다 포로가 잡아갔습니다. 그 때문에 북왕국에 남은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부득불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배우자들의 종교에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722 B.C.년 이후 혼혈(混血)과 혼교(混敎)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남왕국 유다도 586 B.C.년에 바벨론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만 바벨론제국은 끌러온 유다민족에게 그다지 가혹하게 다루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한곳에 모여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배지에서 그들의 전통과 종교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반면, 앗수리아제국에 끌러간 북왕국 이스라엘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남왕국에 남은 자들 또한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뿐이었지만,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남왕국에 돌아옴으로써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인혈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들 속에서 남쪽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不淨)하게 보는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4장에 등장한 여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부정(不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를 제3장에 나온 유대인 율법학자 니고데모와 대조했을 때, 신분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이 여성에게 정을 준 남자들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마음에 상처만 남겨놓고 떠난 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진정한 내님이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정한 임을 고대하던 때에 우물가에서 일곱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부정(不淨)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의 여성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존재가치에 대해서 깊이 자각(自覺)하게 하셨으며, 자신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성은 증거자로 변화됩니다. 이는 제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거자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빌립이 증거자로 변신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성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증거자로 변화됩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을 증거(와 보라)함으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4:39)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증거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써 그분의 양식을 삼는다고 하셨습니다(요 4:34).

제8주
새 시대를 위한 믿음과 중생
(요 4:46-54)

요한복음 4장 46-54절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병에서 고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행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 가나에 머물고 계셨는데 가나로부터 27킬러미터 떨어진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찾아와 병으로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왕은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하는 안디바의 보좌관이었거나 아니면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비가 자식을 위하는 간절한 부탁을 받고도 가버나움까지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고, 그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신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 자기와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모세가 이집트인들의 모든 가축에게 심한 악질이 돌게 하여 다 죽게 만든 재앙과 유형이 같은 기적입니다. 먼 옛날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거역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재앙을 내려 이집트인들의 말과 나귀와 약대와 양과 모든 가축을 다 죽게 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기적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주인이 직접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소유물인 가축이나 아들에게 재앙이 내린 데 있습니다. 만일 신하가 아들이 죽을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의 가축이나 종이 죽을병에 걸렸다면 훨씬

더 출애굽기의 내용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눅 7:1-10),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종이 죽을병에 걸렸고, 마태복음에 보면(마 8:5-13)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병에 걸린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 쓰인 "종"(δούλος)이란 말은 노예를 의미하는 말로써, 2,000년 전, 그리스 로마에서는 노예들이 짐승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쓰인 "하인"(παίς)은 아들이나 노예를 다 의미할 수 있는 말입니다. 둘째, 이 두 기적의 차이점은 '죽임'과 '살림'에 있습니다. 옛 시대의 상징인 모세가 일으킨 기적은 '죽임'이었고, 새 시대의 상징인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은 '살림'이었습니다. 구약시대를 시작한 모세는 살아있던 가축을 죽게 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쳤고, 신약시대를 시작한 예수님은 죽어 가던 신하의 아들을 살려 내어 남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17-24절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이를 살려낸 이야기와 유형이 같은 기적입니다. 엘리야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이 갖는 공통점은, 첫째, 이 두 가지가 다 두 번째 일어난 기적이란 점이고; 둘째,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신 말씀과 엘리야가 "보라.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한 말씀이 동일하다는 점이고; 셋째, 이 두 가지 기적이 다 주인의 아들들이 죽을병에 걸렸거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서 발견되는 주제어는 변화였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 시대에 필요한 변화를 이야기하고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과 엘리야가 행한 기적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과 '회생'입니다. '믿었다'는 말과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하였고, 왕의 신하도 자기와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

였습니다.

이 '믿음'과 '회생'의 주제는 이 사건에 앞서 나오는 존경받는 유대인의 관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이자 바닥인생을 살고 있던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장에서 변화를 강조하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소개되자마자, 제3장에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개되었고, 제4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이방인을 대표하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에서 발견되는 주제어는 '믿음'과 '거듭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율법이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세상에 대한 불신이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음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과의 만남에서 차별없이 열려있는 새 시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열린 시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믿고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새 시대는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에서 나타났듯이 삶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시대이며, 어둠이 빛이 되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없음이 있음이 되고, 쓰러짐이 세워짐이 되고, 병듦이 고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회생과 생명이 넘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을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선포하셨고, 이방인인 왕의 신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 남성 여성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새 시대에 필요한 믿음과 거듭남의 필요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시대는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

다. 첫째, 새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그분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지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합니다. 변화를 받아야합니다. 죄로 멍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새 시대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우실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합니다. 변화를 받아야합니다. 죄로 멍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새 시대를 가져오기 위해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대로 회개해야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메시아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야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맞이할 수 없는 영원한 새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새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출 때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혼인잔치로 설명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새 시대에 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원한 새 시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9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적 사고(思考)
(요 5:1-18)

예수님의 공생애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율법적인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란 말입니다. 닫힘과 죽임의 세계관, 종교관, 가치관을 살림과 열림의 것으로 바꾸란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율법시대가 교회시대로 바뀐 새 천년시대를 말하고 "가까이 왔다"는 주후 30년 오순절 날에 시작된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어 흑암에 살던 민중을 복음아래서 빛과 생명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구시대의 율법적인 생각과 일, 그리고 새 시대의 복음적인 생각과 일이 크게 대립되고 있는 곳이 요한복음 5장 1-18절에 실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던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자비의 집) 연못이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 병 낫기를 바라는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물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병에 걸린 지 38년이나 된 환자가 누워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을 보면, 그의 형편이 매우 나빴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40이란 숫자를 죽음 또는 고난으로 봅니다.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되었단 말은 이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 고침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연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라(8절)"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로 고침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자기 짐을 챙겨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유대인들이 스스로 정한 율법에는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거나 900미터 이상 걷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짐을 메고 길을 떠나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10절).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도 유대인의 안식일 법을 어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어기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어길 뿐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함으로써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18절).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생각과 예수님의 복음적인 생각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구시대의 산물인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생각에 도전장을 내고, 새 시대에 필요한 복음적인 생각을 유도(誘導)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봅니다.

율법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과 그 주위에 있던 다섯 개의 행각(오경을 상징)과 같습니다. 이들 행각에는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고침 받아야 할 환자는 많았지만, 어쩌다 한번 끓어오르는 물에 애써 달려가 봤자 고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고침 받아야할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씩 기다려도 고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사람에게 죄의식과 징계에 대한 심적 부담만 주었지 그들을 고치거나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한 재앙 가운데 사람의 몸에 독종이 나게 한 표적(출 9:8-12)이 있었습니다. 이 표적은 모세가 사람의 몸에 고통을 준 최초의 재앙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38년 된 병자의 고침이 예수님께서 개인의 고통을 고쳐준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 정상인의 육신을 병들게 한 반면, 예수님의 경우 병든 육신

을 고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병을 걸리게 했거나 예수님이 병을 고친 데에는 인간의 생각과 별무 관계일 것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말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9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위급한 일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될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어겨가면서 또 유대인의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또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각오하고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진 개방성입니다.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는 "당신이 나를 돌봐줘야 한다."는 의존단계를 벗지 못하였습니다. 38년 동안 생각의 전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이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38년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율법적인 생각의 희생자였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12절)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던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나 전통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시대의 고정관념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과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온 그들은 실로 이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질병의 고통에 살도록 묶어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보다 순응하고 안주하려는 태도가 더 지배적입니다. 자기를 가두고 있는 낡은 틀과 형식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오히려 낡은 모습, 낡은 생각, 낡은 관습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낡은 율법의 형식주의를 타파하시고,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새 생명을 주는 새 시대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복음적인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적 생각은 믿음과 창조와 하면 된다와 할 수 있다와 살림과 열림의 생각

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혁신적인 생각을 하셨습니다(8절). 잘못을 고치는 개혁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 말라'보다는 '~하라'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부정적이고 외적인 율법의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긍정적이고 내적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생각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전통을 지켜가기 보다는 새로운 습관을 키우고 새로운 전통을 새우려고 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살림'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기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마 12:11-12). 그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막 3:4)고 되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 고침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로 고침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자기 짐을 챙겨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복음적인 살림의 생각, 창조적인 믿음의 생각,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영적인 열림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곳에 새 시대가 열립니다. 믿음과 새 생명의 역사가 열립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10주
살림의 복음
(요 5:19-47)

요한복음 5장 19-20절은 중세 유럽에서 실시되었던 도제(徒弟)가 도장인(都匠人)의 집에서 침식을 제공받으면서 기술을 연수하였던 도제제도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고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행하시는 일이 가져올 표적이 무엇인가란 점입니다.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다음에 나타나는 놀람(wonders)의 반응이기 때문에 기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인 놀람의 반응은 기적의 목적을 수행키 위함인데, 이는 23-24절과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난 대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요,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을 성경에서는 표적(signs)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가져올 표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21절에 의하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아들 예수님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이 무엇이며, "나도 일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할 점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그것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신뢰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행위를 보고 배워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서 보고 배운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배워서 살림의 일을 할 때에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은 죽임의 일이요, 믿는 것은 살림의 일이요, 생명을 얻는 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죽어져가는 것들을 살리는 노력을 경주(競走)해야 합니다.

요한처럼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의 성격을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17절)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24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구원하는 믿음을 정의하여 말하기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꿔

서 말하면, 살림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림의 일을 하시는 아들 하나님, 살림의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신 성령님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고전 6:11)의 일을 하십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할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살림의 일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 생명을 주는 일은 값진 일입니다. 이 일은 자연법칙에 거슬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망가지고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살림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살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살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림을 줘야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죽어져가던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살림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완료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현재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시점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 종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사죄함 받고 얻은 중생을 '시작된 종말' 또는 '현재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일 수는 없습니다. 25-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우리는 '미래종말'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구약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유대인들처럼 흑암에서 죽임의 일을 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종말'을 '시작된 종말'로 바꿔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미래종말에로 인도하여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도 여전히 고난 중에 살게 되는 것은 아직 미래종말의 축복인 육체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바라는 바 소망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이뤄집니다. 이 믿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변화의 능력이며 살림의 일입니다.

제11주
새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
(요 6:1-15)

예수님은 찾아오는 민중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느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분주하셨습니다. 음식도 드시고 잠시 쉬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사람들이 알고 몰려왔습니다. 그 때는 시기적으로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을 겪다가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3월 말경이었습니다. 유대지방의 기후로 봐서 늦은 비가 뿌릴 수도 있는 조금은 서늘한 때어서 봄나들이에 알맞은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말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의 평지를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의 해면보다 약 210미터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여서 배에서 내리면 계속 오르막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름은 지역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부 갈릴리 지방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 수도인 디베랴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 북부 게네사렛 지방의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 불리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민중이 목자 없는 양 같이 나라 잃고 지도자 없이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 없습니다만, 공관복음서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해가 저물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권위 있고 은혜로운 또 시원한 생수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

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 이상의 떡이 필요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하루 품삯을 6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적어도 1,200만 원어치 이상의 떡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액수면 6천명에게 2,000원어치의 음식을 돌릴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서 떡은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나올 당시에만 해도 서양음식인 빵이 없었던 때라 떡으로 번역한 줄로 압니다. 아무튼 예수님에게는 그 많은 돈이 없었습니다. 또 있다고 해도 그 많은 빵을 구해올 공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이 도시락을 먹지 않고 있다가 시장해 하실 예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시락을 혼자 먹지 아니하시고,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도록 하셨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때 신기한 것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로 인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빵과 물고기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열두 바구니에 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실린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었고, 그만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 기적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에서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생명'이 주제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이 기적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

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요 6:40)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요 6:47)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민중을 먹이신 것은 오로지 자신이 새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임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이 있고 난 직후에 행한 설교에서 분명하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요 6:48-51).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 자기들끼리 다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요 6:53-58).

요한복음 6장 14-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라는 모세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고, 그 선지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했던 것처럼 민중을 먹이는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5장 10-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지낸 지 만 40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 후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렇게 모세 때에 내렸던 만나가 유월절을 기하여 그쳤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가가 나타나면, 유월절에 만나의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는 표적을 보였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한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요 6:26).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요 6:27)고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의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대 속에 사는 방식은 낡은 시대의 존재 방식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영원히 살지 못했던 것은 육신의 양식인 만나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영생의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적합한 사고와 생활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육신의 만나가 아니라 영생하는 떡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제12주
새 시대를 위한 예수님 영접
(요 6:16-21)

벳새다 광야에서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날이 저물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도 계시지 아니한데, 갑자기 큰바람이 불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북서방향으로 해안을 따라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에 심한 파도와 어둠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잃지 않고 5킬로미터 정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수위로 걸어 오셨고, 제자들은 유령인줄 알고 두려워하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영접하여 배에 모셨습니다. 그러자 배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다섯 번째로 실린 이 이야기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생명'이 주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죽음의 위기에서라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화가 헌트 윌리암 홀만(Hunt W. Holman)이 그린 '세상의 빛'이란 명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불이 꺼져 있어서 집안에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웃과 교제를 끊고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출입문밖에서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일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온 집안이 빛으로 밝아질 것이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며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고, 11장 25-26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넓은 곳이 10킬로미터나 되는 큰 호수입니다. 북서쪽에는 레바논 산맥과 그 산맥을 마주보고 서있는 높은 산 헬몬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강우량이 많은데다가 갈릴리 호수가 해면보다 210미터나 낮은 곳에 있어서 호수로 흘러드는 물의 양이 많고, 또 이들 양대 산맥에서 형성된 거센 돌풍이 계곡을 타고 내려와 호수 위를 지날 때면 작은 배들을 파선시킬 수 있는 큰 파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놓인 특이한 지형 때문에 이런 돌풍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이용해서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자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돌풍을 종종 만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폭풍 중에서 물위를 걸어와 목숨을 건져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런 특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깨달음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교회를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가정해 봅시다. 때때로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만나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혀 어떤 방법이 없을 때 말입니다.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사정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뢰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들어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병들어 38년간 일어서지 못했던 병자가 자리를 들고일어나 걷게 되고,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가 수천 수 만개의 보리떡과 생선이 되고, 성난 폭풍과 파도가 변하여 고요하고 잔잔하여집니다.

이 바다기적은 우리가 살펴본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새 시대'가 주제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 예수님이 가져올 새 시대를 위한 것이었다면, 폭풍 중에서 제자들을 건져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기적 또한 예수님이 가져올 새 시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떡 사건이 새 시대인 교회시대의 성만찬예식과 관련이 있다면, 예수님영접사건은 새 시대인 교회시대의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비록 순서가 뒤바뀌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도로 갈릴리 호수를 무사히 건넌 것과 빈들에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매우 닮았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내린 재앙 가운데 뇌성과 우박의 재앙(출 9:13-35)이 있습니다. 그 때 모세는 우박을 동반한 폭풍을 통해서 파괴를 초래하였지만, 예수님은 폭풍을 진압하여 고요와 평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모세는 자연재해를 가져다주었지만, 예수님은 재해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모세시대 즉 옛 시대에 속한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예수님시대 즉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히브리민족은 모세의 인도로 옛 시대인 이집트의 노예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새 시대를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시대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는 임시생활이었기에 또 다른 새 시대를 위한 나그네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시대에 하늘로써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생활을 끝낸 후에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착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곳 가나안 정착시대를 영구적인 것으로 착각하였고, 또 다른 새 시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

록 메시아 시대를 간절히 바랐고, 기대하였지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시대란 것도 가나안 정착시대의 연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끊임없는 외침과 피압박의 설음을 면치 못했고, 그나마도 주후 70년 이후로 1948년까지는 나라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무려 1,200만 유대인이 학살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율법시대인 옛 시대를 끝내고 복음시대인 새 시대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사탄에 메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 시대를 청산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새 시대인 교회시대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히브리민족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시대 역시도 영원한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임시생활이자 나그네의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호수 이편이 떠나야할 옛 시대가 되고, 호수 저편이 꿈이 있고, 영생의 복이 있는 새 시대가 됩니다. 옛 시대를 떠나 새 시대를 향해 가는 데에는 히브리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참혹한 노예생활을 했던 것처럼,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결코 인생의 폭풍에 좌절되거나 삼킨바 되지 않고, 오히려 폭풍을 이기고 목적지인 영생복락에 도달합니다.

제13주
하나님의 일
(요 6:22-40)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첫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급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여 냈으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이나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라는 모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장차 올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고, 그 선지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출하여 내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했던 것처럼 민중을 먹이는 표적을 보일 것이고, 장차는 로마제국의 속박에서 구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였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하여 싸웠고 사르밧 과부의 집의 가루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다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게 한 예언자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장차 올 메시아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일 것이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독재자의 압제로부터 구출하여 내고 또 과부의 집에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한 것처럼 민중을 먹이는 표적을 보일 것이고, 장차는 로마제국의 속박에서 구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셋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시킨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와

이사야 11장 전체 특히 10절에 보면,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 말씀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장차올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에서 그의 후손 가운데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배출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별은 다름 아닌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세 인물들 가운데 적어도 두 인물 곧 모세와 엘리야에 관련하여 메시아임이 분명해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동안 이런 표적을 보고자했던 민중은 흥분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열심당원들이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와 다윗과 같은 임금을 기대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정치, 군사), 빵의 문제(경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과 관심은 세상의 일이나 빵을 먹기 위한 육신의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 곧 영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26-27절). 유대인들이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2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29절).

하나님의 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5장 21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이 살림의 일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림의 일을 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살림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이란 하나님이 살림의 일을 하듯이 동일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살림의 일을 본받아 동일하게 살림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본받아 동일한 살림의 일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메시아인 증거를 보이라고 하였습니다(30-31절). 그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은 다름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32-33절)고 하셨습니다. 미처 옳게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엉겁결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34절)라고 했을 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35절)고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36절). 불신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일, 살림의 일, 영의 일, 복음의 일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세상의 일, 빵의 문제, 육신의 일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뜻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뜻에 꿰맞추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하심이 아니요(38절), 오히려 자기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었고(39절),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39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어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40절).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피차 코드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들 유대인들과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4-8

장을 보면,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막 8:29)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귀먹고 어눌한 벙어리(7:31-37)가 고침을 받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또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향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벳새다 장님(8:22-26)이 고침을 받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민중의 빵 문제를 해결했던 두 개의 급식기적들은 귀먹고 어눌했던 벙어리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듣고 말하게 되고, 장님이 눈을 떠 볼 수 있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을 때, 빵 문제를 뛰어넘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와 같이 마가복음 8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곧 육신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요, 마음이 둔한 자이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치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또 기억력이 나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자이며,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없는 자입니다.

제14주
새 시대를 위한 해원병
(요 6:41-71)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떡, 하늘로써 내려온 떡,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우리가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것을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써 내려왔다 하느냐?" 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42-43절).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찍이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에비온파(Ebionites)가 예수님을 단순히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유일신사상을 지나치게 옹호하려한 나머지 단일신론(Monarchianism)이 나왔는가하면, 양자설(養子說)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여호와증인들이 이들 이단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44절)고 하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47-4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역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자라야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양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당신의 육체의 살과 피를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빈들에서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표적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죗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양으로 죽고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심을 암시한 것이었습

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13세 이상의 남성만 오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비록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뿐이었지만, 유월절 어린양처럼 희생되어 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세시민속(歲時民俗) 가운데 대보름 민속으로 해원병(解怨餠/원한을 푸는 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 이해(利害)에 얽히건 오해에 얽히건 간에 누군가와의 사이에 원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불편한 관계를 갖는다면 피차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보름 명절에 그 불편한 관계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 해원떡을 만들었는데, 원한이 클수록 크게 만들고, 작으면 작게 만들어서 산사(山寺)의 스님을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지난해의 불편했던 관계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떡을 통해서 원수 된 관계를 풀고 서로 화목하는 해원상생(解怨相生)의 길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하였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해원떡이 되셨고, 이 떡을 나누어먹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느 집안에서나 제사를 지내면 음복(飮福)이라 하여 제주(祭酒)와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마시며, 마을제사 때도 소나 돼지와 같은 희생물을 제사 후에 반드시 한 점씩이라도 나눠 먹습니다.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눠먹고 마시는 것은 제사가 끝났으니 나눠먹자는 뜻이 아니라, 그 제사음식에 신(神)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눠 갖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끝나면 분량의 크고 작음이나 질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떡 한 조각, 밤 한 톨이라도

나눠 먹어야 했으며, 그것을 먹으면 병에 안 걸리고, 액(厄)도 사라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신에게 바쳐진 음식은 구원의 복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바친 제물에도 구원의 복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으로 준비하신 화목제물 속에야 얼마나 큰 영생의 복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선물(膳物)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뜻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바친 하찮은 제물에도 구원의 복이 담긴 신의 선물이라고 하거늘, 하물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하신 대속의 제물이야말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이 선물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를 위한 우리의 영생의 떡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 떡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49-51절)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다투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52절)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의심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25)고 하신 말씀을 무시한 채 성만찬예식을 자주 거행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자주 행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불신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할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 .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

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53-58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충격으로 받아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노예 값에 팔아넘기는 비극적인 일을 범하고 말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조차도 열두 사람만 남고 모두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66절). 그 때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67-69절).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원수된 대신(對神)관계 및 대인(對人)관계를 화목관계로 바꿔놓으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해원떡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지 않고서는 해원상생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15주
왜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요 7:1, 25-36)

요한복음 6장의 유월절과 7장의 초막절사이의 시간의 흐름은 만 5개월 정도가 됩니다. 주후 30년 상황이라면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4월 초순(4월 8-15일이 유월절이었음)에 일어난 일이었고, 7장은 9월 하순(10월 2-8일이 초막절이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해에는 9월 18-19일이 유대인들의 신년(新年)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6장의 사건이 있고난 이후부터 신년까지를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해방절이고,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같이 추수축제일입니다. 유월절은 춘분이 지난 직후 뜨는 만월 때에 시작이 되고,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날(음력 8월 15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날과 하루나 이틀 정도 시차가 있을 수 있고, 2년에 한번 꼴은 음력 9월의 만월 때에 지킵니다. 예를 들어 2003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003년의 초막절은 음력 9월 만월에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는 숙콧(초막)을 짓고, 과일로 장식하여 감사를 표하고, 숙콧에서 모든 음식을 먹음으로써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간을 갈릴리에 머무신 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을까요?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6장 14-15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하신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대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너무도 분

명한 표적이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실린 예수님의 기적이 오병이어 하나뿐인 것을 보아도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은 반역에 관련된 음모이고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아니면 민중봉기이든 어떤 세력기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대에 권력을 손에 쥔 헤롯왕가나 유대지방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여당세력인 사두개인들 혹은 여당세력은 아니지만 상당한 기득권을 누렸던 바리새인들이 관련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칠세라 전전긍긍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풀어놓아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잡아 죽일 궁리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31-32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찌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하신 말씀이 이를 입증합니다.

자고로 가진 자들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가진 것을 놓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린 가진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너무 많다면, 롯의 부인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끝내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기득권을 그대로 누리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험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하였다면, 그것은, 첫째, 민중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민중봉기를 두려워하

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중은 생각보다 어리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보고자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고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25-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한 이 말은 민중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란 것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년 전 어리석은 민중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다가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죄를 대속할 구세주이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겠는가?"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며, 영생의 복을 놓치는 대실수인 것입니다.

만일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하였다면, 그것은, 둘째,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도전하는 이단자로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28-29)고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었다면, 이는 실로 율법이 명한대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중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했던 자들은 아마도 열심당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은 독립군과 같은 이들로 혁명을 꾀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를 이용하려하였습니다. 31절을 보면,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동일시하려했기 때문에 열심당원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굳이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지 않더라도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잠시 이용하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빵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의 일에만 온통 정력을 쏟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힘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영광"(7:18)과 의식주해결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6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16주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요 7:2-24)

30년 10월 초순에 있었던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고(눅 18:12),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39개의 더욱 엄격한 안식일법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경건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종교인이 없을 듯싶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하셨고, "외식하는"(마 23:23)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마 5:20). 그들 가운데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요한도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마 3:7)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엄청난 독설을 받아야 했을까요?

첫째, 의(justice)와 인(mercy)과 신(faithfulness)을 버렸기 때문입니다(마 23:23).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과 신의 또는 신실은 율법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람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막 7:8)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막 7:13)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경배라고 하셨습니다(막 7:7).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19절).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들린 자라고 하였습니다(20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

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눅 7:34)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눈과 귀가 어두워질 수 있을까요? 소경을 보게 하며, 앉은뱅이를 걷게 하며, 문둥이를 깨끗케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문도 듣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벌써 정의도 사랑도 신의도 땅에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고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전통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미신과 속임수로 민중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 23:27).

오늘날에도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이미 썩어서 냄새를 풍기며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을 다해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서 정의와 사랑과 신의는 찾아 볼 수없고, 신약성경을 헌법으로 하기보다는 교회전통을 앞세우며, 세상적인 가치기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려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 교회는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하자는 지론을 내세웁니다. 신약성경교회로 돌아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대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부분인 모퉁이돌이라면, 사도들은 그 모퉁이돌들 사이에 놓이는 기초석들입니다. 그 분들의 가르침과 전통위에 세워져야 바른 교회인 것입니다(엡 2:20-3:11).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책

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7-13절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고 하셨고,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셨으며, 또 13절에서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말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유전"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세운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교회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을 아는 지식과 행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대했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을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분을 일컬어 '귀신들린 자'(요 7:20; 마 12:24)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들을 향하여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요 7:24)고 하셨고, 마태복음 7장 21-23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전통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크다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역사가 오래다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대로가 아닌 전통이 있다면, 아무리 크고 또 그 역사가 아무리 오래되었다하더라도 성도의 기본인 신약성경의 전통에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약성경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합니다. 사도들의 예배전통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여 놓으신 성경의 명칭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나 견해를 따르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오직 성경만을 성도의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정하여 놓으신 규정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해석한 방식대로 해석하며, 신약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며,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일들은 사랑으로 성도들의 견해의 차이를 피차에 인정하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에로 돌아가 그 순수성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눅 18:8).

제17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 7:37-53)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37-38절)고 외치셨는데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생수의 강"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39절)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인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생수의 강이란 말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여섯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초막절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나하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못하고 사람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40년이나 유랑하며 천막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라서 달리 먹고 살만한 식물도 없었고 물도 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어려운 환경을 오랫동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 때, 그들의 조상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건너와 겪었던 고초와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이 먹었던 칠면조와 호박파이를 먹듯이, 유대인들도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생활을 하며 고생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셨던 것을 기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민족은 한해에 세 번 추수감사제를 드립니다. 초실절이라 하여 유월절 안식일 다음날에 첫 수확한 보릿단을 바치는 축일이 있고, 맥추절은 그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오순절)에 첫 수확한 밀을 봉헌하는 축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추절과 동일한 초막절에 7일간 지키는 추수감사제가 있습니다. 초막절의 경우는 레위기 23장 39-43절의 말씀대로 첫날에는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 나뭇가지와 시내버들을 들고 춤추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또 조상들의 광야생활을 기리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7일간 그 안에서 생활하는 축제입니다. 수확을 마치고 먹고 쓸 것이 풍성한 바로 그 순간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생활을 회상하고 체험해보는 뜻 깊은 축제인 것입니다. 가졌을 때 갖지 못한 때를 기억하고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초막절이 갖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초막절 때 성전에서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습니다. 보통은 포도주를 붓지만 이 날만큼은 제사장과 함께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37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물을 부을 때, 그들은 이사야서와 시편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원합니다. 축제는 칠일동안 계속되는데 특히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사죄의 날로 선언하고,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계속해서 제단에 붓고 나팔을 불며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면서 춤을 춥니다. 바로 이 때, 곧 초막절 큰 날에 모든 축제가 절정을 향해 내달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초청의 목청을 높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37-38절).

요한복음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찾아오는 변화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

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1:12)고 했고, 마리아의 믿음이 물을 포도주 되게 하였으며,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율법이 복음으로 변했고, 수가성 여인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으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중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을 때, 폭풍은 멈췄고, 그들은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7:38-39)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생수처럼 넘쳐나게 하겠으며, 인생의 문제들로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신 반석의 생수처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목마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가나혼인잔치의 혼주는 포도주가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가난한 민중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목 타게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 니고데모는 참된 진리에 목말라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애정에 목말라 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목마름에 한순간도 눈을 부칠 수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는 38년을 한결같이 도움의 손길을 목 타게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목마름에 애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4:13-14)고 하셨습니다.

고대인들은 흐르는 강물을 생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열두 사도들의 가르침』7장「세례」부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 있는 물로 세례를 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 있는 물"은 웅덩

이에 고여 있는 썩은 물과는 달리 강물이나 샘물처럼 움직이는 신선한 물을 말합니다. 피부병 환자를 정하게 할 때 살아 있는 물을 사용했고(레 14장), 기타 정결례를 행할 때도 살아 있는 물을 사용하였습니다(민 19:17).

물은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면서도 흐르는 물은 왕성한 힘을 지닙니다. 물은 변화의 명수입니다. 열을 받으면 수증기로 변하고, 기온이 떨어지면 서리나 어름으로 변하고, 때로는 창공에 흐르는 구름으로 또는 촉촉이 내리는 비로 변합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서 물은 변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물은 재빨리 적응해갑니다. 물은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이자 무수한 생물들이 더불어 사는 터전이면서 더 넓은 대양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하며 더러운 것들을 흡수하여 정화해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생수의 성령님을 샘솟듯 부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가뭄으로 거북이등처럼 메말라있던 심령이, 가정의 형편이, 삶의 답답증이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빵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야곱의 우물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실로암 연못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7:37-38절). 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4:13-14)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18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 8:1-11)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변화의 주체자이면서 정작 스스로는 변치 않는 로고스, 독생하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새 시대, 곧 교회시대, 은혜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를 활짝 여실 분으로 소개하였고,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의 증거자로 소개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빛과 생명을 주는 첫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소개하였고, 3장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였으며, 4장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영적예배와 민족과 신분의 차별이 없는 교회시대의 복음의 특징을 말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율법과 안식일문제를 다뤘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도 빛과 생명의 일 곧 살림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메시아 됨의 표적인 오병이어를 소개하였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밝혔습니다. 7장은 다시 율법문제로 돌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8장 1-11절에서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성이 변호인도 없이 고소인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여성은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분명히 어겼고, 또 신명기 22장 22-24절에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하든지, 처녀인 여자가 약혼 후 외간남자와 통간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이 여성은 성문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4-6절을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

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고 하였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또 타의든 자의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목숨을 구하는 큰 행운을 얻는 일입니다. 비록 좋은 만남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성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목숨도 구하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율법에 명한 것은 간통죄를 범한 남녀 모두를 성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여자와 통간한 남성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여성을 정죄할만한 정의로움이 그들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흑암아래서 행하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눈멀고 귀멀고 우둔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임을 그들이 알지 못한 점입니다. 하물며 빛과 생명의 주(主)이시며, 은혜와 진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한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아니한 것보다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한 것이 더 큰 죄라고 말씀하셨고,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2:32). 셋째는 이 세상에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소자들의 흥분과 외침이 가라앉고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셨거나 답변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를 일입니다.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신 말씀은 흥분이 가라앉고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를 궁금해 하면서 답변을 기다리는 침묵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만이 남을

정죄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율법의 완전한 해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이지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란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도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정욕문제에 "떳떳하다"고 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서기관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정욕을 참지 못하고 한순간 죄를 범했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갔습니다. 그는 살그머니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윗 바리새인도 엊그제 음란영화 포스터에 한눈팔다가 공사 중인 하수구에 빠진 일이 생각났습니다. 시장바구니 들고 배추 사러 갔다가 댄스교습소에서 우연히 만난 제비씨와 몰래 놀아난 라합 사모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로소 자신들도 예외 없이 간음한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죄를 범한 죄인들임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의 율법이 살림의 복음으로 변했습니다. 처참한 사형장이 될 뻔한 자리가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는 구원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흑암에 갇혀 살았던 자들이 양심의 빛을 찾았고, 잘못된 율법의 이해로 인해서 살인자가 될 뻔했던 자들이 선량한 시민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개죽음을 당할 뻔했던 이 여성도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고소자들과 간음한 여인 모두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메시아 됨의 표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 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마 5:17).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조차 이 가련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 하시고 갱생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10-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받을 형벌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받겠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죗값을 물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죗값을 간음한 여인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묻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림의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살림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살림의 일이 희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빛과 생명의 일을 할 수없습니다. 초가 제 몸을 녹여 기름삼아 불사를 때 빛을 낼 수 있듯이 또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질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빛과 생명은 희생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이 희생의 때를 영광 받으실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역설성입니다. 그 누가 희생을 영광과 동일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이야말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란 사실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의든 타의든 놀라운 긍정의 변화, 살림의 변화, 빛과 생명에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19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12-59)

본문말씀은 다음 장인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와 연관된 내용이며, 참 빛 곧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초막절행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장 37-53절에서 물이 초막절행사에 중요한 부분이었듯이 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성령님에, 빛은 예수님에 연관지어졌습니다. 초막절이 광야에서의 나그네의 삶과 그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라면, 광야생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시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의 물 긷는 예식은 구름기둥을, 횃불을 밝히는 예식은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성령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4:14) 또는 힘차게 흐르는 강인 성령님을 표시하며(7:37-39), 구름기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부어주어 성령님으로 깊이 잠기도록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빛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며, 불기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빛은 참 빛 곧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주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광야생활을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힘과 용기와 진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행사였던 물 긷는 예식이 끝난 후에 생수를 주시겠

다고 외치셨고, 성전의 불빛이 꺼진 후에는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초막절 중에는 성소에 있는 촛대와 여인의 뜰에 횃불을 밝혔으며 횃불행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횃불행렬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끝난 다음에는 불을 껐습니다. 따라서 12절의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은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명절과 상당히 유사한 명절일 뿐 아니라, 지키는 날짜도 동일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태음력에 윤년이 들어 있는 해에는 초막절이 추석명절보다 한달 늦게 지켜질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저녁시간이 낮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행사가 있는 때면 무엇보다도 빛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의 축제는 대부분 달이 밝은 보름날을 끼고 있습니다. 축제 때에 휘히 밝혔던 횃불이 꺼지고 어둠이 다시금 하루의 시작을 지배할 때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빛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흑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을 두고 어둠에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기준인 출신신분이나 출신지 또는 학력과 같은 겉껍데기만을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준하여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판단은 항상 진실하고 믿을만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들 가운데는 그가 나사렛이란

촌마을출신이기 때문이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란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성경연구를 많이 또 오랫동안 했더라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우쳐주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는 진리의 빛을 보게 되며, 그분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받아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31-36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란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후반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인류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요,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율법의 멍에에 짓눌려 참 빛을 보지 못했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으며, 참 생명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빛을 보게 하셨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으며,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처럼,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죽음 속에 살고, 어둠 속에 헤매며, 자유를 속박 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짓 진리에 빠져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점이 살림의 일과 죽임의 일의 차이였듯이, 참 진리와 거짓 진리와의 차이점도 살림의 일과 죽임의 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는 살림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진리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어둠에 눌린 사람에게 빛을 주셨고, 병들어 혼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쳐 온전한 새 질서를 주셨고, 죽어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살려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는 살림의 일을 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진리는 죽임의 일을 합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자유를 속박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진리처럼 보이나 속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시체 썩어 가는 냄새로 악취가 가득합니다.

성전 여인의 뜰에는 나팔모양의 13개의 연보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또 연보궤가 놋쇠여서 돈을 넣을 때마다 나는 짤그랑 소리 때문에 헌금액수를 가늠해 보려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드러내 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은 참 빛 곧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므로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을 물리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며(12절),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24절),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면 그분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진리의 빛을 보게 되며, 참 자유를 얻어 누리게 되고(31-36절),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51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20주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요 9:1-11)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고침 받고 눈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불행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뚜렷하게 들어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길가에서 만난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측은히 여기거나 도우려하기보다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는 신학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동시대의 유대인들은 인간이 당하는 불행의 원인을 죄 때문인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불행당한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었고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기일수였습니다. 살림의 일을 하기보다는 죽임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불행만난 사람을 건져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모세오경은 인간이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원인을 죄 때문인 것으로 가르쳤고, 부모의 죄 특히 아버지의 죄는 자손 삼사 대까지 이르게 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출 34:7; 민 14:18; 신 5:9). 이로 인해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렘 31:29; 겔 18:2)는 속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포로기를 전후해서는 이런 속담이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습니다. 성경이 한 개인의 불행을 100% 자기 자신의 죄 또는 부모의 죄 때문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모세오경에 집중된 탓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유입된 자연법칙은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법칙(열역학2법칙)으로써 자연상태에서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生)은 다 죽음에로(老病死) 달려갑니다. 한 개인이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자연법칙에 따른 것이지 반드시 또는 100% 그 자신이나 부모의 죄가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자기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기인한 불행이 많고 또 자연법칙 자체가 아담의 죄로 기인한 것이란 점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불행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유대인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인간이 겪는 불행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나타나심을 위한 것이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은 그 자체로써 불행하고 악한 것이지만 반드시 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불행을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으로써는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하나님은 인간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불행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고통 중에 사는 이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살림의 일 곧 사랑을 베풀라는 깊은 뜻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인간세계에 불행이 존재하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대신에 완전 행복을 주지 아니한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 다른 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일 곧 살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듯이 예수님은 죽음이란 흑암이 찾아오기 전에 혹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

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4절)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빛 아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천적인 모범이 인류를 구원하는 등대요 하나님과 그 분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인류의 빛인 것입니다.

여기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빛을 볼 수 없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여 살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바로 당대의 유대인들이었고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눈뜨지 못한 사람들이 눈을 뜨고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덮고 있는 진흙을 씻는 일입니다. 6절에서 "진흙"은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죄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을 물과 성령으로 씻어내야 합니다(요 3:5; 딛 3:5).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 동남쪽 바로 안에 있었던 연못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밖에 있던 기혼샘의 물을 지하통로를 파서 성 안쪽으로 끌어들여 만든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4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의 일군들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은 어찌 보면, 교회일수도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세우신 구원의 기관이요 물과 성령으로 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보내어져야할 자들은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어두워 살림의 일 또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죽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씻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 구걸하던 신앙이 변하여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나더

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볼 수 있는 성한 눈을 가지고서도 율법주의의 형식과 논리에 빠져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멀쩡했지만 속에서는 썩어 냄새나는 자신들을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멀쩡한 사람들까지도 우매한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하는 눈먼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참아 눈뜨고 볼 수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분노를 금치 못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 23: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마 23:15).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눈뜬 소경 또는 외식하는 위선자가 아닌가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성서해석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진리에서 벗어나 흑암에 살게 하는 눈뜬 소경 또는 외식하는 위선자가 아닌가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마 23:25) 위선자가 아닌가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빛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행합니다.

제21주
새 시대를 위한 세상의 빛
(요 9:12-41)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여 고친 기적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맹인의 눈을 고쳐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빛을 볼 수 있게 된 맹인은 예수님을 "사람"(11절), "선지자"(17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33절)과 "주님"(38절)으로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의 빛"에 관한 말씀은 이미 1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을 주는 "사람들의 빛"(1:4)인데,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1:5)고 하였습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빛을 볼 수 없는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자로서 피아노를 전공한 한 여성의 말에 의하면, 시신경(視神經)이 끊어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정안(正眼)이었지만, 소경이 된 지금은 빛조차 전혀 느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은 고사하고 빛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 볼 수 있게 되면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33절)과 "주님"(38절)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뜬 후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람"(11절)이라고 부르더니, 그 다음에는 "선지자"(17절), 그 다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3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38절)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에서 어두움이 걷히고 광명이 찾아왔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눈을 떴다고 생각했던 자들, 즉 바리새

인들은 이 이야기 마지막에서 눈 먼 자들로 지적당하고 맙니다. 이는 3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한 말씀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1:12)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세상의 빛"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밝혀지고 있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3:16)고 하였으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 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두 개의 신체장애자 치유기적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귀먹고 어눌한 벙어리였고(막 7:31-37), 다른 사람은 벳새다 장님(막 8:22-26)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장애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가...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치 못하느냐?...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막 8:17-21).

제자들은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였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은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은 물질과 명예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고 듣는 것 가운데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받을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누릴 명예와 권세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번민하며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높은 지위를 누리는 단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도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을 때

에, 또 소경의 눈이 뜨였을 때에 제자들의 대표자격인 베드로가 비로소 참 진리를 깨닫고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소경의 눈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정신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릴 때에 참 빛을 볼 수가 있고, 참 빛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427-347 B.C.)은 「동굴비유」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굴 속에 묶인 채로 그림자가 비취는 벽만 바라보고 수십 년씩 살았던 죄수들은 벽에 비취는 그림자가 실재인줄로 알고 믿었지만, 결박에서 풀려난 다음, 벽에 그림자를 만드는 참 빛을 볼 수 있었고, 그 순간 그 동안 자신이 알고 믿었던 것이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고,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 하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38년 동안 앉은뱅이로 고통 받게 하였고, 날 때부터 장성하도록 장님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로 봐야 그분으로부터 세상의 빛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우리 안에 짙게 내린 어둠의 그늘, 죄악의 그늘을 몰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치유이야기를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치유와 비교해보면, 몇 가지 비슷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이 두 장애인이 모두 안식일 날에 연못에서 고침을 받고 있고, 이 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치유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

개되고 있는데, 실로암 연못의 맹인치유에서는 "빛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기적이 모두 침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눈먼 청년이 실로암의 물을 통해 그의 시력을 되찾았듯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 빛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에 눈을 씻음으로 시력을 되찾은 맹인은 침례에 의해서 빛을 찾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엘리사를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은 그가 싣고 온 많은 재물이나 그가 누린 명예나 권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요단강에 내려가 물로 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침례를 받아 영혼의 눈이 뜨이고 병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I was blind but now I see!)(25절)으로 인해 우리는 빛과 생명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흑암재앙(출 10:21-29)을 베풀어 온 땅을 어둡게 만듦으로써 눈을 뜨고도 볼 수 없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제자"(28절)라 자랑하는 이들의 삶은 빛을 흑암 되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의(38절) 삶은 어둠을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22주
나는 선한 목자라
(요 10:1-21)

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목자로 세워진 유대지도자들이 눈뜬 소경 곧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흑암에 빠뜨리는 죽임의 일을 하는 자들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흑암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 곧 살림의 일을 하시는 분으로 밝히 들어났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누가 참된 목자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참된 목자로 선언하시면서 참 목자의 성격과 자격을 거론하셨습니다.

첫째, 참 목자는 길과 진리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참 목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참 목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진리를 가르칩니다. 참 목자는 살림의 일을 하며,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을 줄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 분은 이 땅위에 단 한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십니다.

거짓(삯군) 목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거짓 목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잘 밝혀 줍니다.

1. 하나님의 종 모세의 자리(권위)에 앉은 자들(마 23:2).
2.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마 23:3).
3.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도 까닥하지 않는 자들(마 23:4).
4. 경건하고 신령한체하는 자들(마 23:5).
5. 높은 자리와 명예를 좇는 자들(마 23:6-7). 예수님은 여기서 아

버지를 한분 하나님, 선생과 지도자(목자)를 한분 그리스도, 인간들은 피차 섬겨야할 형제와 자매로 말씀하셨습니다(마 23:8-12).

6.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마 23:13).

7. 힘써 얻은 교인을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자들(마 23:15).

8. 눈 먼 인도자(마 23:16).

9. 어리석은 맹인들(마 23:17).

10. 십일조는 드리되 그보다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는 자들(마 23:23).

11. 하찮은 것은 걸려내고 값진 것만 꿀꺽하는 자들(마 23:24)

12. 겉보기에 거룩한 듯싶은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마 23:25).

13. 겉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서는 송장이 썩고 있어 악취를 풍기는 자들(마 23:27).

14. 겉보기에는 의롭게 보이나 그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마 23:28).

15. 참 목자들을 죽이고 매장하는 자들(마 23:29-30).

둘째, 참 목자와 거짓 목자와는 양떼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양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참 목자이지만(1-2절),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거짓 목자입니다(1절). 참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하며, 양떼를 앞서 가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릅니다(3-4절). 그러나 거짓 목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합니다(5절).

셋째, 예수님은 양들의 참 목자 일뿐 아니라, 또한 양 우리의 문입니다(7절). 양들이 안전한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서 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과 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자 정문 일뿐 아니라, 또한 이 길과 문을 통해서 양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양 우리로 통하는 바

른 길과 문으로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와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자들은 다 거짓 목자들입니다(8절).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과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9절).

넷째, 참 목자와 거짓목자는 양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참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하며(10절),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22절). 그러나 거짓(삯군) 목자는 양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흑암에 빠뜨려 우매하게 만들며, 자기 유익에 이용할 뿐 아니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하며(10절),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들을 돌보거나 구하려들지 않고 도망하여 버립니다(12-13절). 이는 당대의 유대지도자들이 미쳤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참 목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민중을 우롱하는 삯군 목자들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뜬 맹인이요 삯군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길로 제시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민중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들을 자행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들려 미쳤다"(요 8:52; 10:20-21),"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마 12:24; 눅 11:15), 술주정꾼이다(마 11:19; 눅 7:34) 등의 말로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매한 민중은 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늘로써 내리는 표적들, 곧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언론플레이에 속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저들의 음모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을 아시고, 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라도 구원의 양 우리에 들어와야 할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14-15절).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착하고 신실한 우리에 든 양들

입니다. 이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1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고 두 종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였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동조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고 하였을 때 "귀신들려 미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19-21절). 이런 반응이 나온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란 사실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목자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신 뜻은 "내가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참 목자다"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민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요한 사명에 실패하였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그들 자신이 실패자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혹 알아챈 사람이 있었다 해도 대세에 눌려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든 타의든 실패자들의 인도함을 받으면, 추종자들도 반드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긍정적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생애 최고의 선택이자 잘한 선택이며 바른 선택입니다. 더 이상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길을 제시할 것이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진리를 깨우쳐줄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까?

제23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10:22-42)

요한복음 10장 22-23절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7-9장까지의 상황이 초막절과 연관된 말씀들이었다면, 10장은 수전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년 2003년의 경우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날짜와 동일한 날에 지켜지고 않고 한달이 늦은 10월 11(음9.16)일에 시작되어 17일까지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수전절은 12월 20일에 시작되어 27일까지여서 7장에서 10장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대략 2달 반 정도입니다.

수전절은 기슬레우월 25일에(양력 11-12월에 해당함) 시작되는 성전봉헌절(하누카)로 8일간 8개의 촛불에 매일 하나씩 불을 밝혀가기 때문에 '빛의 축제'라고도 불립니다.

2168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헬라제국의 에피파네스 안디옥쿠스 4세(175-164 B.C.)는 대제사장직을 매매하고, 유대교를 금지시켰으며, 성전을 약탈하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헬라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봉헌하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안디옥쿠스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유대교의 모든 종교의식 특히 할례, 안식일, 절기들을 사형으로 금지시켰고, 율법서의 소유도 사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 대신 안디옥쿠스는 유대인들에게 연극, 스포츠, 대중탕사용, 나체운동, 테두리 넓은 모자 착용 등과 같은 헬라문화와 관습을 강요하였고, 이에 젊은 사제들 가운데는 제단을 버리고, 원반던지기를 연습하며, 할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타디아란 이름의 제사장과 그의 다섯 아들은 여기에 굴

복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숨어 지내던 하시딤(구별된 자들)의 무리와 힘을 합쳐 게릴라전을 펼치며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마카베오란 사람은 뛰어난 전사였고 그의 활약으로 주전 165년에는 유대교 금지령을 해제하는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청결히 한 후에는 야훼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성전예배가 중지된 지 만 삼년만 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치고 할렐(Hallel)을 노래하며 8일간 축제를 열었는데 그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와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의 의미를 다민족 속에서 한 소수민족이 그들의 문화적 주체성과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어떻게 노력해왔는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카베오전쟁을 유대인이 타민족과 다를 수 있다는 권리를 찾기 위해 벌린 성전(聖戰)으로 생각합니다. 또 압제에 대항하는 길은 그 압제자들이 제거하려는 가치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카베오와 그의 동료 하시딤(구별된 자들)은 안티옥쿠스 4세에 대항해서 싸우며 그가 제거하려고 한 유대교 가치와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이자 시온주의자인 브랜디스(L. D. Brandis)는 수전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누카(수전절)는 승리를 축하하는 마카베오축제이다. 그러나 단지 군사적 승리를 축하함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것의 승리를 축하함이며 외부의 적인 그리스인들에 대한 승리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이겼음을 축하하는 것이다. 하누카는 또한 민중의 이익을 슬그머니 배신해온 무사 안일한 소수의 특권 권력계층에 대한 민중의 승리, 즉 귀족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기도 하다(월간 성서와 함께 1986.1. 제118호).

이런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계절, 특히 냉기가 돌고 비가 자주내리는 겨울철(22절)에 예수님이 바른 가치 바른 진리로 민중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지배계층의 사람들과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면서 민중의 이익을 배신해온 특권계층에 대항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봉헌절의 분위기 속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요 2:21)를 하나님께 드려 봉헌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심문과 죄목이 이곳에 다 언급되어 있음을 봅니다. 24절부터 38절까지가 공개적인 청문회내용입니다. 질문과 답변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문: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밝히시오.

답: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지 않았소? 내가 말했어도 당신들은 믿지 않았소. 당신들은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이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요(24-30절).

문: 당신은 지금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소. 당신은 사람인데 어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모세의 법에 따라 당신을 돌로 치겠소.

답: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였는데 나를 이단자로 몰겠단 말이오?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한 말씀도 못 읽어보았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는데, 하물며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한단 말이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고, 행하거든, 나를 믿지는 않을지라도 그 일만은 믿으시오.

예수님은 이 시기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며 가르치셨습니다(23절). 이 솔로몬 행각은 초대교회 설립배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

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셨다는 의미보다는 초대교회가 이곳에서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탄압한 사두개파 지배세력들에 대항하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진리의 숭고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후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낮 시간대에 주로 성전 영내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공동예배를 드렸고(5:12), 저녁 시간대에는 가정에 모여서 성만찬(애찬)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 말씀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가정에 모여 성만찬 예배를 드리면서(행 2:46; 3:11; 5:12, 42; 20:7; 눅 24:53) 소수 인원들이 모인 모임이기는 했지만,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의 탄압에 맞서나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기 위해 표적보기를 원했고, 그토록 원했던 표적들을 보았으나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게 가진 권력과 명예를 모두 다 내놓아야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남북통일을 원치 않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모두 다 우리 주변의 힘을 가졌다하는 나라들아 아닙니까? 마찬가집니다. 가진 자들은 변화된 세상이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백성이 발전하고 깨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소유한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지키려고 수구세력이 되고 보수 세력이 되어 변화의 바람을 막고 인재를 거부할 뿐 아니라, 철저히 매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참 가치를 지키는데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24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
(요 11:1-16)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표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소개된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죽어서 굴무덤에 장사됐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은 믿음과 새 생명에 관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설교의 총체적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예수님을 살린 분으로,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분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죽임으로부터의 살림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죽임과 영혼의 죽임까지도 포함하는 죽임으로부터의 살림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죽임뿐만 아니라, 작은 집단과 큰 사회를 망라한 타락과 병듦까지 다 포함하는 죽임으로부터의 살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죽임은 아담의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임의 법칙인 현재의 자연법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죽임의 법칙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이전에 어떤 자연법칙이 있었다 해도 현재의 자연법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자연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으로써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법칙입니다. 살림에서 죽임에로 가는 법칙입니다. 건강에서 병듦에로 가는 법칙입니다. 싱싱함에서 시듦에로 가는 법칙입니다. 새것에서 헌것에로 가는 법칙입니다. 사랑에서 미움에로 가는 법칙입니다. 평화에서 전쟁으로 가는 법칙입니다.

부활은 이런 자연법칙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생명법칙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죽임으로 상징되는 옛 시대의 자연법칙의 사슬을 끊고 생명으로 상징되는 새 시대의 생명법칙에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맛보고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삶은 예수님 재림의 때에 완성될 새 생명의 삶에 대한 약속이자,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삶이요, 생명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자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활로 설명되는 생명회복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영혼의 부활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육체의 부활과 우리 인간이 죄로 병들게 한 인간 공동체의 회복과 우리 인간이 물질의 욕심으로 병들게 한 지구회복을 다 포함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죄로 죽었던 자신의 영혼이 산 사람들이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로운 육체로 태어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죽임의 일을 하지 말고, 살림의 일을 하라고 한 것이요, 더 이상 죽음의 사슬에 얽매어 있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자유인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큰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요, 자기 주변의 공동체나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힘쓰는 일이요, 혹 병들었다고 하면 고치는 일에 힘쓰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와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

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임의 일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요, 살림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려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지구가 환경파괴로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려 있습니까? 이 중한 병을 고치고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진정한 부활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한 기적 가운데 열 번째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출 11:1-12:30). 이 재앙은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장자로 태어난 것은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안에 3대 독자가 살았다고 칩시다.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딸들만 살아남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가 눈물바다로 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서운 재앙 때문에 앞서 행해진 아홉 가지 재앙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바로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과 평행을 이룹니다. 모세의 재앙이 마지막 클라이맥스였듯이 예수님의 기적도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죽음'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명이 있던 곳에 죽음을 가져왔고, 기쁨이 있던 곳에 통곡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가져다주었고, 슬픔이 있던 곳에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죽이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참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죽이는 옛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새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체화된 것이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이고,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님께서 빛을 주시는 분임을 입증하는 표적이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입증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연법칙에 지배받지만, 복음은 생명법칙에 지배받습니다. 자연법칙은 죽이는 것이요, 생명법칙은 살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과 동물을 죽이는 재앙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중을 억압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죽이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민중을 풀어주고 해방하고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연법칙만을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죽임의 일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살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살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제25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 11:17-57)

어제와 오늘은 유대인들에게 5764년이 되는 신년(新年) 새해입니다. 해가 바뀌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과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걸어서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베다니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남매가 있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뜻한바 그대로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나흘만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길 만큼 헌신적이었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열성적인 여인이었고, 언니 마르다는 섬김과 봉사에 충성스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귀부인'(마돈나) 또는 '존귀한 자'란 뜻이고, 마르다는 '숙녀'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여성은 말씀공부와 봉사라는 두 가지 성격의 성도의 본분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자매들은 나사로가 병들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시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병든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는 점입니다(3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 고통스런 일을 겪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생로병사와 번민들은 별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 . .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5-16)고 하였습니다.

변화의 능력인 믿음의 산 표본이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으로 보았습니다(4절). 그 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머물고 계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곧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죽어서 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영광의 때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4절). 나사로의 부활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공회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모의에 착수하는 동시에(53절) 체포령을 내려 잡게 합니다(57절).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때를 가리켜 예수님이 영광받으실 때라 하였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살리는 자를 죽여서 제거해야 할 자로 간주하는 권세 쥔 자들의 시각도 문제려니와 죽음의 때를 영광의 때로 보는 예수님의 시각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진리의 역설성입니다. 성경은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썩어야 열매 맺고, 부인해야 인정받는다는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아니고 부활의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의 때도 부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믿음으로 살림의 일을 할 때마다 영적으로 경험되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의 때에 몸의 부활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일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숙해지며 영적인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버려둔 것은 제자들을 위함이라고 하셨습

니다. 나사로의 병을 죽을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함으로 보았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5, 42절). 예수님의 지체함으로 빚어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응답의 지체가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위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나사로에게 닥친 죽음의 고통은 그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게 큰 영광이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도 영광일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한 자들의 믿음과 영생을 위해서도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40절)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와 계시록에서 시종 믿음과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계 13:10; 14:12)고 하였고, 6장 12절에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 주십사하고 간청했던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어서 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17절),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22절)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23절)고 하였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4절)고 대답하였고, 예수님이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25-26절)고 물었을 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27절)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그 능력을 가능하게 한 수단은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

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변화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눈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33절)고 했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35절).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4-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통분과 연민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통분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분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타납니다(36-38절).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은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43-44절). 그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들의 승리였습니다.

제26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요 12장)

요한복음 12장은 이해가 쉽지 아니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가 노동자 일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값비싼 나드 향유 0.5리터를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붓고 자기 몸의 귀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가하면, 왕이 백마를 타고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가하면,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강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하고, 그런 자신을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회계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를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했고(4-6), 다른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와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강림하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12:16-17). 하물며 메시아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하늘로써 내리는 표적, 곧 모세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고, 엘리야처럼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게 하고, 병의 기름을 마르지 않게 했던 것 같은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다고 믿었던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로서야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마 12:39)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된지 삼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고전 1:22-24)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자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다짜고짜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12:24)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참 세계, 곧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 갈 수 있는 지식을 얻게 할 지혜를 구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이 그와 연관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들도 역시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한 말씀을 듣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쯤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값비싼 나드 향유보다 더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알아챘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고 하신 바울의 말씀처럼 학식을 갖춘 유대인들에게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12:40)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심청전에서 심봉사가 눈을 뜬 것이 공양미 삼백석 때문이 아니라 앞 못 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백미 삼백석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던 심청이의 효심 때문이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리스도가 노동자 일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값비싼 나드 향유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값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재물보다 소중한 가치, 명예나 지위보다 더 소중한 가치, 이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사람만이, 왜 왕이 백마를

타고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였는가, 또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강성하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또 그러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하는 길이요 빛과 생명을 얻는 진리이며, 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마 13:44) 사람과 같고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마 13:46) 사람과도 같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던지는 일은 분명 영광 받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나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나 희생은 영광으로 보상되는 크고 소중한 가치에 목숨을 거는 투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보다 크고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사람들로 그분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빌 2:5-11).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영광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가치관을 둬야겠습니까?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12:44), 빛의 자녀(12:36)가 되는 길이며,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12:46),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영생토록 보존 받는(12:25) 변화의 능

력이요, 빛과 생명의 길입니다.

성서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빵의 문제를 걱정하며 세상의 일에 매인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아 헤매되 그들에게 세상의 일과 빵 문제를 해결해줄 육신의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만이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란 사실과 "하늘로써 내려온 산 떡"(6:50)이란 사실을 믿으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왜 백마를 타지 못하고 나귀를 타야 하는가, 구원을 약속받고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백마타고 재림하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때에는 우리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승리자들의 개선행렬에 서게 될 것입니다(계 19:14).

제27주
향유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 12:1-11)

12장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상생애 마지막 유월절 6일 전에 베다니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동네는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주후 30년 3월 31일 금요일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로부터 꼭 일주일 후인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굴 무덤에 계신 시간은 대략 38-40시간 정도이고, 날짜로는 3일간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축제 곧 무교절은 춘분이 지나고 찾아오는 첫 음력 보름날부터 시작되고, 기독교의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첫 음력 보름이 지난 후 돌아오는 첫 일요일에 지켜집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바로 그날 마리아는 식탁테이블 곁에 비스듬히 누워 음식을 드시던 예수님의 발에 0.5리터 정도의 순정품 나드, 값으로 환산하면 무기술 노동자 일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향유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런 돌출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평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경청했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터라 누구보다도 더 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드려진 어둠의 그늘과 얼굴 가득한 수심과 고뇌를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에 분주해서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속사정을 파악할만한 경향이 없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로만 알았고 또 출세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슬픔과 고뇌를 알아 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만큼은 무언가 강하게 느끼는 것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것은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강한 느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보여행 후에는 손님에게 손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거나 씻겨 드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더라도 혹자들이 말하듯이 베다니 사람들이 씻을 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거나 마리아가 최고의 희생과 헌신을 표현한 사랑고백 성격의 것이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드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스파이크 나드(Spike Nard)로 불리며, 인도에서 공급되었고, 건초와 같은 향을 지닌 나드향에는 세스키페르핀과 바레라놈이란 성분이 함유돼 있어 집단 세균성 감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살균작용과 잔치 음식으로 인한 배탈이나 설사 등의 예방 및 해독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드향에 심리적 안정효능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는 마리아가 수준 높은 향유 전문가였을 것이란 추측까지 낳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뇌를 읽었던 마리아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나드향을 선택했을 만큼 나드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마리아가 나드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씻긴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말고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란 것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돌출행동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문제를 삼고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직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요 6:15), 예수님께서 이를 단호히 거절하는 설교를 들은

이후로 예수님에게 실망을 느꼈고, 이때로부터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하는 자들에게 팔아넘길 생각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읽고 계셨고,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요 6:70)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표적 직후 유다의 변심뿐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요 6:66).

우리는 12장에서 서너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과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마르다처럼 분주히 식탁 봉사나 남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 나사로처럼 예수님 곁에 앉아서 잔치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구경꾼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구경나와 있었습니다. 4-6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라 했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척했지만, 실은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회계를 맡고서 공금을 횡령한 것은 그가 예수님에게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신의도 저버린 까닭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1813-1855)는 올가미를 놓아 남을 등쳐먹고 사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나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람이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고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가진 자들이 바로 거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키엘르케고르는 세상을 구경꾼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군중에 휩싸여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일에 헌신적으로 쏟아 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9절의 구경나온 유대인들이 세상을 구경꾼으로 혹은 군중에 묻혀 사는 사람들일 것이고, 마리와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일에 헌신적으

로 쏟아 붓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피상적인 인생을 살면서 환경에 따라 이리 저리 방황하며, 이런 저런 삶의 경험들을 맛보지만, 근본적인 결단을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조만간 권태를 느끼게 되어, 삶의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게 됩니다. 한 곳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중들'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형성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군중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과 참된 인간성을 회피합니다. 그러므로 군중은 비인간화된 자기 상실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많은 사람 가운데 파묻힌 한 개의 모래알과 같이 무명인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삶을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부여한 삶에 목적이 있다는 소명의식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경꾼으로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군중 속에 자신을 파묻어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일에 헌신적으로 쏟아 붓습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되거나 군중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일에 몸을 던집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 나드 향유와 같은 향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제28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요 12:12-19)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주간은 금요일 베다니에 도착하신(요 11:55-12:11; 마 26:6-13; 막 14:3-9) 때부터 시작됩니다. 도착당일 식사 중에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마리아의 헌신을 일주일 후에 있을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일로 받으신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토요일만큼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조용히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또한 지난날의 고단한 순례와 다음날 있을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뤄진 안식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날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모두가 설레는 날이었고 긴장감이 도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갖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3년 6개월여의 지난날의 고생을 끝내고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얻어 누릴 영광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 때문이요,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민중과 권력자들에게는 "이번 명절에는 과연 예수가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낼 것인가?"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로마제국의 지배아래 살아가는 유대인들로서는 유월절 명절엔 왠지 모를 흥분과 기대에 휩싸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마치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살짝 건들기만 해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명절은 민중봉기의 가능성이 연중 가장 높은 시기였고, 로마총독과 대제사장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숨 가쁜 한 주간으로 기억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란 소문은 널리 퍼져있었습니다. 유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문제를 일으키곤 했던 예수님의 관행으로 볼 때, 필시 이번 유월절에도 나타나실 것이란 기대와 흥분과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전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거리로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군중심리도 크게 한몫했을 테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며, 융단대신 겉옷을 벗어 오시는 길에 깔며 목청껏 '호산나'와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면서 앞에서 달리고 뒤에서 따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열광했습니다. 이 분위기는 빨리 가라앉히지 않으면 쉽게 민중봉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이요 권력자들도 크게 우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뜬 분위기나 군중심리에 결코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신중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함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것이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역사 앞에 신중하게 행동했었나를 말해 주는 증거들입니다.

민중의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괴롭고 무거웠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었고, 인간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익이 없을 때는 언제라도 배신하고 돌아설 것이고, 희생양으로 처형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신의 독특한 사명에 대해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왔고, 민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권력자들이 무엇을 논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느냐 죽느냐의 사생결단을 내려야할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결정한다면, 민중이 지금은 기대와 흥분 속에 일시적으로 환호의 물결을 이루지만, 흥분이 식는 날엔 성난 파도로

돌변하여 대제사장의 무리와 한패가 되어 자기를 집어삼킬 것과 사랑하는 제자들조차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길 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던 예수님이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자 이를 피하고 싶은 욕망이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발걸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단함을 과연 누가 알아주었는가? 예수님의 고뇌를 조금치라도 눈치 챈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꼭 이루리라고 결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옥합이 깨질 때 향기가 발산되었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24절)는 사실이 예수님의 마음에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제자들의 기대와 민중의 요구를 뿌리치고 "죽으면 죽으리라"(에 4:16)는 각오로 봉기군을 이끌기 위해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방패를 손에 쥐는 대신에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마 21:1-11; 막 11:1-11; 눅 19:29-44; 요 12:12-19). 예수님의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겸손의 나귀를 타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쟁과 소요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며 사랑하며 섬겨야할 평화의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시 118:25).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렘 23:5, 30:9, 33:15-18, 겔 34:23, 37:24).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31절과 마태복음 1장 1,6절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나 베들레헴의 별의 출현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표시들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며, 베들레헴의 별은 다윗의 별 곧 메시아를 지칭하는

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출생 시에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란 분명한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사상은 세상적인 것, 곧 이스라엘국가를 로마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이스라엘나라를 세계통치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중 특히 열심당원들은 오병이어 표적 직후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을 삼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이후로(6:15) 예수님 곁을 떠났던 자들이지만(6:66), 예수님의 수도입성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진심을 알게 된 후에 무너졌고, 분노로 돌변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는 그들의 기대를 표현한 환호성이었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9:15)는 그들의 실망과 분노를 표현한 외침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야했는지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의 꿈이 물거품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말씀하신대로 다시 사셨고,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로 강한 성령체험이 있었고, 성령님의 깨우침으로 서서히 예수님의 진심이 파악되었습니다(14-16절).

모두가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행동은 그분이 왜 어린 나귀를 선택했는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없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29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요 12:20-5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은(20절)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일 것입니다(행 13:16,26). 아시리아제국, 바벨론제국, 페르시아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 당시 망명 또는 유배로 인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디아스포라'라 함)이 많았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건립하여 회당중심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하나님을 섬기는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이방인들은 극소수만이 완전 개종자('의의 개종자'라 함)들이었고, 대다수는 절반 개종자('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는 '문의 개종자'라 함)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열심 있는 자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같은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 순례하였습니다. 이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만나 뵙기를 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과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전갈을 받으시고 느닷없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23-26절).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

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7-28절).

예수님은 유대교 개종자들의 방문을 십자가 수난의 시점으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열방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을 보신 듯합니다. 선교를 위한 자신의 순교가 셀 수 없이 많은 구원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할 것임을 몸소 실천해 보이실 때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교를 본받는 자가 생명을 영생토록 보존하는 자요,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열방에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바울이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이들 절반 유대교 개종자들이었고, 이들 가운데서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여 선교지 교회들의 창립멤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교 개종자들 가운데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비롯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본국에 돌아간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방인들을 보실 때, 활짝 열린 기독교시대의 미래를 함께 보신 것이고, 이들의 방문에 고무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키 위해서 죽기를 재차 다짐하신 것이고, 순교의 중요성까지 언급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대중설교이자 나타난 결과입니다.

첫째,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기대에 있어서 예수님과 대중사이에 좁혀지기 어려운 간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적어도 세 사람의 인물에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다윗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를 원했던 표적은 다름 아닌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 곧 배고픔을 해결해줄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으로써 만난 인물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굶주림

을 해결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자 영적인 문제를 다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민중에게 제시했던 메시아상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처럼 광야에서 굶주린 민중을 먹이셨고,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표적들을 많이 행하여보이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민중들도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민중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종 외쳤던 대로 다윗임금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점에 있어서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평화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실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죗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나라의 평화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처럼 민중이 묻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고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중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설교에 실망만 커졌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이제 분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유월절에 영광 곧 죽음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을 피해서 잠시 숨으셨습니다. 그러나 저자 요한은 민중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유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40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중은 빵의 문제와 세상의 일에 매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고, 마음이 완고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43절에서 말씀하

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자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신 말씀들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44-5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보여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며,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며,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제30주
가문의 영광
(요 13:1-33)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13:31-32).

최근 나온 코믹물 가운데 '가문의 영광'이란 영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호남 주먹세계의 대부인 쓰리제이 집안에 학력 좋은 사윗감을 들여서 가문을 빛내보려고 집안사람들이 펼치는 코믹물인 듯싶습니다. 몇 년 전에 영어를 잘하는 한 방송인이 국빈의 통역을 맡고난 다음에 방송에서 그 일을 두고 '가문의 영광'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듯 '가문의 영광'이란 집안의 명성을 높여줄 무슨 큰일을 성취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인 듯싶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모두가 다 부끄럽게 여기는 극형인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장 3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집안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높은 가치를 둔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 12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되고, 13장부터는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2:4)고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이르기 이전시기의 내용들이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의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때'와 '영광'이란 말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말합니다.

후반부 13장부터는 때가 이른 단계에서 이루어진 내용들, 곧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과 고별설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가문의 영광을 빛내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예수님은 바로 파악하신 듯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고귀한 가치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일(12:24), 죽어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일(마 26:28), 죽어 많은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며, 하나님 집안을 빛내는 일임을 아시고 죽는 일을 영광 받으시는 일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얻어 누리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일에 영광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19:17)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고귀한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초상집, 곧 골고다 언덕 위에 선 십자가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제자들의 마음은 황실 보좌 좌우편에 앉게 될 높은 지위들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뇌와 번민을 깨닫지 못했고,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천년 전 예수님의 열두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칫집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이루시려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의 이 잘못된 몽상을 깨우치려하신 것일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자하는 제자들, 이제 곧 예수님께서 황실 보좌에 오르게 될 것이고, 자신들은 높은 벼슬자리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들뜬 잔칫집 분위기에 젖어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뇌와 번민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13:13-14)고 교훈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귀한 가치를 알았는지 주의 죽으심을 위해서 노동자 일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반면에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13:34-35).

이 말씀은 높은 벼슬자리에 혈안이 되어 이반현상을 보이든 제자들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치를 지배에 두지 않고 섬김에 두셨습니다. 높은 벼슬자리에 두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 순종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이루는 데에 높은 가치를 두셨습니다.

아침기도

김남조

목마른 긴 밤과
미명의 새벽길을 지나며
싹이 트는 씨앗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이 눈물 흐르게 하듯이
생명들도 그러하기에
일일이 인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제게 주실
허락이 남았다면
주님께 한 여자가 해드렸듯이
눈물과 향유와 미끈거리는 검은 모발로써
저도 한 사람의 발을
말없이 오래오래
닦아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 한 가지 소원으로
기도드립니다.

제31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 13:34-38)

일요일 예루살렘 입성 후 마지막 만찬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한주간의 행적을 요한복음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공관복음서(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 기도문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입성후의 행적을 보면, 월요일에 성전을 청소하셨고(마 21:12-22; 막 11:12-25; 눅 19:45-48; 21:37-38), 입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화요일은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날입니다(마 21-25장; 막 11:27-13장; 눅 20-21장; 요 12:20-50). 이 날 무화과나무가 고사되었고, 종말과 심판에 관한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날엔 질문도 많았습니다. 제자들의 종말의 징조에 관한 질문,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의 세금납부에 관한 정치적 질문,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교리적 질문, 바리새인들의 큰 계명에 관한 윤리적 질문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기하신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 과부의 헌금, 예루살렘의 멸망, 재림, 종말 등에 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강연은 대부분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들로써 이 많은 말씀들과 질문들이 이 한날에 다 있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내용들을 주제별로 모우고 이것들을 또 13장 천국비유를 중심축으로 하는 대칭으로 배열하였기 때문입니다. 화요일의 말씀들은 5-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칭되는 내용으로써 산상수훈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이 화요일의 담화들은 천국이 임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구체적인 모의가 있었을 것이고(마

26:14-16; 막 14-10-11; 눅 22:3-6), 목요일에 제자들은 유월절식사를 준비했습니다(마 26:17-29; 막 14:12-25; 눅 22:7-38; 요 13:1-17:26). 유월절 양은 평일 희생제사 시간과 동일한 오후 3시에 도살합니다.

그리고 이 날 밤(유대시간으로 금요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또 주의만찬제정사와 고별사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죽음을 앞둔 기도를 하신 후에 체포되셨습니다. 체포 후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유대시간으로 금요일 하루에 이뤄진 일들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만찬이 공관복음서의 유월절식사 날짜와 동일한가라는 문제가 신학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의 "유월절 전에"와 3절의 "저녁 먹는 중"이 동일한 날짜가 아닐 수 있고, 또 1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안식일(유월절 명절중인 안식일이므로 특별한 안식일로 취급 함) 전날인 금요일(예비일)이었다는 점에서 공관복음서에서 언급한 금요일과 일치하지만, 18장 28절의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라는 말이 마치 유대인들이 아직 유월절식사를 하지 못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난을 당하신 해의 유월절식사는 유대시간으로 금요일이 시작되는 밤 곧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18장 28절의 상황은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유월절식사가 끝난 지 대여섯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요한이 예수님의 사망시간을 목요일 오후 3시 곧 유월절 어린양의 도살시간과 일치시킴으로써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1:29)으로 소개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유월절과 연관시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예수님이 체포되어 심문을 받기까지 유월절 잔치를 먹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동향을 감시하고 체포하여 구금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모의하고 실행했던 행동대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설날이라도 보초 설 사람은 보초를 서야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34-35절), 예수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1절). 예수님이 수난과 부활의 때를 영광 받으실 때로 보신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활짝 열린 기독교시대를 보신 때문이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할 제자들이 권력에 집착하며,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줄 알고, 자리다툼을 벌리는 일까지 있었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들까지 생겨나서 불신이 깊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식사하시다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의 복수심은 대단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피의 복수자'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당시의 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동해상해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마지막 말씀으로 당부하셨고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3장에는 두 제자들의 배신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빵의 문제 곧 돈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겼고, 수제자를 자처하며 용맹을 떨치던 베드로는 고문이나 총칼의 위협이 아닌 단지 대제사장의 종들의 물음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갔고, 무지하고 순수하기 그지없던 베드로는 한 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후에 지상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36-3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

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quo vadis Domine?) 이 말은 폴란드인 헨릭 쉥케비츠(H. Sienkiewich)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쿼바디스'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온갖 삶의 풍상을 다 겪은 듯한 한 노인이 한 소년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 탄압하기 시작할 때, 초로의 이 노인은 박해를 피해 로마를 빠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어느 한 해안에서 고기를 잡으며 황혼을 맞고자 은둔의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산등성이에 우뚝 선 나무위로 밝은 빛이 비췄습니다. 노인은 이전에도 한번 이 빛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무릎 꿇은 노인 곁에 선 소년의 입이 열렸습니다. "로마의 내 백성들이 널 찾고 있다. 네가 내 백성들을 버리면 난 로마로 돌아가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소년의 음성은 곧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되돌아가자, 로마로!"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목양하다가 체포돼서 나같은 죄인은 바로 죽을 수 없다고 간청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기 전에 우리의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제32주
길, 진리, 생명
(요 14:1-15)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까지만 해도 명예나 권세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민중들이 거리로 나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12:13)라고 외칠 때에는 출세가도를 거침없이 달리는 듯싶었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알자, 모두들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였습니다. 기대했던 명예와 권세가 물거품이 되었으니 실망이요, 까딱없이 스승을 잃게 되었으니 낙심이었습니다. 상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고별만찬석상에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서로 사랑하라"(13:34)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14:1)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첫째,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2절). 둘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3절). 셋째, 그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16절). 넷째,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13절). 다섯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27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궁궐보다 더 좋은 처소를 마련하겠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데려갈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간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돕겠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27절)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주실 때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5절). 또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8절).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22절).

이 세분의 제자들이 묻는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빌립은 아버지를 아는 진리에 대해서, 유다는 영생을 얻을 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들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란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후반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는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the way)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진리(the truth)요, 영생(the life)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고,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 심지어는 천사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해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the new and living way, 히 10:20)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은 헬라인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 위의 영원한 세계에 있는 이상적인 형상의 불완전한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 보이는 세계를 그림자의 세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보이는 그림자의 세계 즉 불완전한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데아의 세계 즉 참 실재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자들로부터 참 실재에로 나아가는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실재에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12:2)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영생에로 인도하는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진리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상대성과 다중 진리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믿고 따랐던 진리, 예수님이 밝혀준 진리를 믿고 따라야 생명을 얻고, 빛을 얻고,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살림의 일이 진행되고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진리는 죽임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전 우주 공간과 모든 시간과 모든 존재를 다 뒤져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학 속에서, 비교종교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성과 양심 속에서, 실험관 속에서, 자연 속에서 찾아봐도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진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이 누렸던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려야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정복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던지 혹은 그렇게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요 1:4).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요 6:48). 예수님은 하늘로써 내려온 산 떡이었습니다(요 6:51). 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요 8:12).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24-24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제33주
보혜사 성령
(요 14:16-18)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6-18).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주신 약속들 가운데 한 가지가 당신의 부재함을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곳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18절과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약속의 성령님은 임재의 하나님 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본문 그대로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주(內住) 동거(同居)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뤄졌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곧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용어는 이사야서에 두 번 나옵니다(사 7:14; 8:8).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요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글에도 예언되어진 약속입니다(욜 2:28-29; 겔 36:26-27; 겔 37:14).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강림사건 속에서 지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공동체로 택하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모든 백성에게 임재하지 않았고, 오직 기름부음 받은 자들에게 사역기간동안만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신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사 또는 능력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곧 임마누엘은 신약시대의 선민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임마누엘은 은사나 능력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의 성격에서 볼 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나 능력은 성령님의 선물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은사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라 하였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동거하시면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

였습니다.

성령님께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신약성경을 쓰게 하신 일입니다. 신약성경은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또는 당대의 교사들은 진리로 인도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바탕을 둔 말씀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당대의 교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해석하게 하신 말씀들을 모운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진실하고 신실한 자들의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을 받아 성경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벧후 3:16)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로 부릅니다.

셋째, 성령님은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도움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오순절 날 성전 뜰 솔로몬행각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보혜사"의 "다른"의 의미는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성(人性)을 가지셨듯이 성령도 인성을 가지신 인격신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증인들을 이단자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님을 인격신으로 보지 않고 능력이나 힘(에너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곁에'란 접두어와 '부름'이란 말이 결합된 단어로써 그 뜻은 '다른 사람 곁으로 불려온 사람'이 됩니다. 변호사 또는 의사 또는 상담자와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보혜사란 변호사나 의사 또는 상담자가 인격체인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체이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곁으로 청하는 이유는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초청에 응한 사람은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롬 8:26)까지 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소멸하거나(살전 5:19) "근심하게 하지 말라"(엡 4:30)고 하셨습니다.

넷째, 성령님은 증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을 하나의 약정(約定)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저가[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하셨고, 에베소서 1장 13-14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구원약정서에 찍힌 인감도장과 보증금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를 보여주는 증표로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짐승의 표(계 14:11)를 받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침례를 받아 매주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의 증표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 그분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생활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34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 14:19-31)

요한복음 14장 16-1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믿는 자들과 함께 할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마 약속하신 예수님은 26-27절에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배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곧 주님의 평안을 주시마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곧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마 하신 말씀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하신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23)가 주님의 평안을 가진 신자의 마음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마음의 평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써 이 땅에 오셨고(사 9:6; 히 7:2), 부활이후의 예수님의 인사와(요 20:19-26) 교회들에 보내는 바울의 인사는 언제나 평강을 비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부어주신 성령님이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의사처럼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고, 변호사처럼 억울함을 도우시며, 상담가처럼 연약함을 도우시고, 교사처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들을 위해서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전무후무한 독특한 시대, 곧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임마누엘시대), 천국시대(종말시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는 볼모가 되시며, 구원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되시며, 계약 후에 주는 계약금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십니다(고후 1:21-22, 엡 1:13-14).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볼모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약금을 바쳐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희생시키셨고, 성령님까지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것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는 일찍이 없었던 매우 독특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후 30년 오순절 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이 활동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 시대는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밝고 안정된 미래를 열어 주십니다. 비록 이 시대는 절망적이고 불확실하지만,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오고 있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 주십니다. 비록 이 시대는 악하고 고통스럽지만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다 주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다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구원계약서의 도장 찍음이 되시며, 선수금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시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는 교회시대로 만드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는 일찍이 없었던 매우 독특한 시

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로 통합시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통합사역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통합사역 첫 번째,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계층간의 차별을 없애 주신다는 뜻입니다.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 돈이 많고 적은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 희고 검은 사람, 강하고 약한 사람, 남자나 여자와 같이 우리 각기 다른 사람들을 성령님은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녹아들게 하는 용광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주인이나 머슴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으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통합사역 두 번째,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받고 한 몸 그리스도에로 편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공동체 즉 신약(새 언약)시대의 선민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인들은 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성령님은 이 지체들을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엡 4:3). 성령님은 이 계약 공동체의 구원을 도장 눌러 보증하시고 실현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이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피차 형제자매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성령님의 이 통합사역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고,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와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이름아래 하나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보증하시며 이 시대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시대,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는 교회시대로 만드시며, 그들을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에로 통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보증하시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실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현실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현실로 바꾸시며, 그들을 한 몸 그리스도에로 통합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35주
포도나무와 가지들
(요 15:1-8)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일종의 뿌리(族譜)의 성격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자신들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대인 국가의 한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 독립군 대장이자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추앙받았던 바르 코크바에 의해서 주조된 주후 134-135년의 주화에는 포도송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신령한 뿌리를 자랑합니다. 이 신령한 뿌리를 두고 예수님은 "참"이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는 율법과 형식에 얽매어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 대조되는 말씀으로써 1장 17절의 말씀대로 "참"은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에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일곱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제자들인 성도들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잘려버리면 그 가지는 필경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영적으로 반드시 죽게 됩니다. 가지는 줄기를 인정하고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줄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포도나무의 줄기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곧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빛을 받아야 가지의 잎은 열매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이 있어

야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은혜와 진리의 맛이 풍부한 포도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가지치기라는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불필요한 곳에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요, 격년결과 없이 꾸준하게 열매를 맺게 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케 하신다"는 뜻은 가지치기와 껍질 벗기기를 말합니다. 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병충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리고 벗겨지는 시련을 통해서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풍성하고 질 높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련을 통과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줄기에서 잘린 가지처럼 생명이 없음으로 말라죽게 되고 결국 불쏘시개가 되고 맙니다. 시편 10편의 말씀처럼 불신자들의 하는 일이 언제나 잘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또 악인들이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고, "어디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의 사전에는 불행이란 단어는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영혼은 죽어 말랐으며, 지옥의 불이 그들을 땔감으로 고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섯째,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그분의 계명대로 살면,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듯이 보이고, 당장은 손해를 보는 듯이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형통하는 자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데 그분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크게 깨닫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와 같은 유명한 민화들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사는 이유를 사랑을 베풀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복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권회복 기념으로 주조된 이스라엘의 주화들

유대반란전쟁 때(134-135년)에 발 코크바의 지시로 주조된 은화로써 가운데에 포도송이를 새겨 넣었다.

이스라엘이 건국기념으로 1948년에 주조한 최초의 근대 히브리 주화이며 알루미늄에 포도송이를 새겨 넣었다.

제36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 15:7-25)

요한복음 14-15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응답의 조건과 목적 등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4장 13-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고, 그분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15:12).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라고까지 했습니다(15:14). 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15:10), 그러한 사람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뤄진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15:7).

넷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15장 16절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힘과 능력으로 또는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게 할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이웃의 고마움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응답도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이는 기도함으로써 형제자매들의 고마움을 알게 할뿐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피차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사랑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함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5장 8절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합니다(15:12).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15:17).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앞서게 될 때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특히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에게 서운함을 갖게 하는 언행은 결국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생업을 위한 중보기도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에게는 항상 몸가짐을 낮춰 언행을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기도응답의 지름길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장면을 가장 많이 소개하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으며(3:21-22),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의 신령한 체험을 하셨다(9:28-29)고 적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생애 전에 금식기도(4:1), 병 고치신 후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5:16),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철야기도(6:12), 제자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전 홀로 기도(9:18),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 기도(11:1),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22:32),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22:41-46), 십자가상에서 박해자를 위한 기도(23:34), 그리고 임종 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23:46)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간청의 기도(11:5-13), 끈질긴 기도(18:1-8), 그리고 겸손한 기도(18:9-14)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에 관해서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행 2:15; 3:1; 10:3,9,30; 마 27:45-46; 막 15:25, 33-34; 눅 23:44). 기도는 성전과 집에서 했습니다(2:1,46; 3:11; 5:12,21,42). 그들도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맛디아를 뽑을 때(1:24),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2:1이하), 무시로 생활 속에서(2:42; 10:3,9), 병자를 고치기 전에(3:1), 감사의 기도(4:23이하), 지도자를 뽑아 안수할 때(6:6), 스데반의 박해자를 위한 기도(7:60), 성령의 외적 증거를 위해서(8:15; 9:17), 중보기도(12:5),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13:3), 옥중에서(16:25), 작별기도(20:36), 그리고 축사(27:35) 등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는 역사 하는 힘이 강합니다(약 5:16).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엡 6:18). 둘째,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마 21:22). 셋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막 11:24). 넷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빌 4:6). 다섯째, 예수님께서 비유로써 말씀하신 것처럼, 필사적으로 끈질기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활용할 줄만 안다면 어둠을 밝힐 수도 있고, 기계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력이 강한 전기가 들어와 있다 해도 사용할 줄을 모른다면 전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스위치입니다. 기도는 마치 전기스위치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전기가 아무리 흔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력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항상 우리 주변을 덮고 있어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에 엄습해 오는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없으며, 기계 돌아가듯 우리의 삶을 힘차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춥다,' '어둡다,' '힘이 없다'는 등의 불평이 있다면, 기도하지 아니한 우리 자신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요 14:13-14)고 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고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여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37주
진리의 성령
(요 15:26-27)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15:26).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어떻게 보혜사의 일을 하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하시는 구원사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구원사역은 회심전(前), 회심중(中), 회심후(後)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심전 사역은 하나님께서 미리 뽑으신 자들을 부르시는 인도자의 일이고, 회심중 사역은 부름에 응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의사의 일이고, 회심후 사역은 거듭난 자들을 돌보시는 보혜사의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3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미리 정하신' 일과 '의롭다 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부르신' 일과 '영화롭게 하신' 일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일의 근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의 대속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구원사역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뽑으신 자들을 부르시는 인도자의 일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뽑으신 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15:26),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16:13).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고전 12:3). 이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회심전 구원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구원사역은 죄로 인해서 중병에 걸린 인간을 치유하시며 살리시는 의사의 일입니다.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롬 8:11). 이 일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을 구분지어 말할 때에 흔히 하나님을 재판장에, 그리고 성령님을 의사에 비교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믿는 자에게 무죄를 선포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의사이신 성령님은 인간의 본질문제와 관련해서 병들고 썩은 곳을 도려내고 수술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칭의하심은 믿는 자의 죄문제를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며 영구적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성령님의 성화는 죽음에 이르게 하던 죄인의 병을 수술로 치유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중생 또는 거듭남의 사역이 바로 성령님께서 죄인 가운데서 행하시는 회심중 구원사역입니다(딛 3:5-7; 고전 6:11).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편두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편두통은 의사에게 찾아가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시간에 맞춰서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러자 편두통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이 환자로 하여금 의사를 찾아가 치료받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환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편두통이 사라지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약입니다. 환자에게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의사가 처방한

대로 물과 함께 약을 먹지 않았다면 그의 편두통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사는 성령님을 말하고, 물은 침례를 말하며, 약은 성령님의 치유능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로 병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죄로 병든 인간을 치유하며 살리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구원사역은 거듭난 자들을 돌보는 보혜사의 일입니다. 이 일이 성령님의 회심 후 구원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주치의(主治醫)이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과 "우리로 저(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한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죄의 병으로부터 살려내는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죄의 병으로부터 살려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점진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점진성화의 과정은 마치 죽을병을 수술로 고친 의사가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돌보듯 성령님께서 거듭난 자들을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주치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변호사이십니다. 검사에 해당되는 고소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쉬임없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신다"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과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회심후 사역은 변호사처럼 우리를 사탄의 고소로부터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입니다(롬 8:27).

이제 성령님의 공적 증거적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증거사역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행 2:22; 롬 15:18; 고후 12:12; 히 2:4). 큰 능력 행함은 주의 종이 전파한 하나님의 뜻의 진실성을 입증 또는 확증하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종과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모세의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한 표적들이었고, 엘리야의 기적은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이었습니다(왕상 17:24). 둘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은 그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이었습니다(행 2:22). 셋째, 사도들의 방언과 능력 행함은 교회창립과 신약성경의 완성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진리의 영이시며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구원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선물인 은사는 특정인에게 주어지고 받은 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이고 도구적인 사역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행함을 '증거사역'이라고 부릅니다(벧전 4:10; 고전 12:7).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안내자로서 교사로서 의사로서 혹은 변호사로서 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적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내재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임재의 성령님 곧 임마누엘이 신약시대의 가장 큰 복이자 특징입니다.

제38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1-33)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버려두고 곧 떠나실 것이란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단자로 몰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이는 자신들이 설자리를 잃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나 친지들 또는 친구들에게 당할 처지를 염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14:1).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16:33).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을 만난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코앞에 둔 순간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후(死後)의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닥칠 시련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울을 위시한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1절에 의하면, 바울은 개심이전에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또 모

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회당제도는 바벨론 포로기(주전 586년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회당은 안식일 날(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드리는 공적인 예배장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였으며, 종교재판이 열리는 유대인시설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출회를 당한다는 것은 곧 가족과 친지와 공동체로부터 매장당한다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회당에서의 출회는 지역사회로부터 단지 매장 당한데서 끝나지 않고, 심하면 목숨을 빼앗기는 아주 무서운 이지매(집단 따돌림)였습니다.

이런 곤경에 처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으로써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셨습니다. 이 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제자들은 신약성경을 기록하여 남겼으며, 곳곳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7절로부터 15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란 사실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써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터인데, 자의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고 배운 것만을 일러 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오로지 사람들의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죄없다함을 인정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었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20-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인이 해산할 때에는 근심한다.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는 슬픔에 싸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이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근심이 평안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죽음이 영생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신앙의 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하늘 보좌방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도들이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면, 우리가 이 순간에도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탄식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근심과 슬픔과 고통은 부활과 영생이란 옥동자를 낳기 위한 수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모든 것이 썩어짐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

는 엔트로피법칙(열역학2법칙)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자연의 법칙을 믿음으로 거슬러 살아갈 뿐이지 여전히 자연의 법칙에 매어 삽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실 그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만이, 믿음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살았던 사람들만이 새로운 대자연의 법칙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것이기에 22절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가 근심하며 슬퍼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야 할줄 압니다.

다른 한 가지 말씀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신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란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39주
보혜사는 누구인가?
(요 16:7-11)

첫째, 보혜사는 새 언약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자 특징입니다.

혹자는 인류역사를 일곱 시대, 곧 ①무죄시대, ②양심시대, ③인간정부시대, ④약속시대, ⑤율법시대, ⑥은혜시대, ⑦왕국시대로 나누지만, 크게 보면, 인류역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뉩니다. 양시대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주인이며 주관자이시란 점이고, 차이점에 있어서는 구약시대의 경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 곧 열방민족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택하시어 성령님의 권능으로 덧입힘을 입은 특별한 일군들을 통해서 사역하신 점이고, 신약시대의 경우,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택하시어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침례하시어 일군을 삼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구별된 하나님의 일군들에게 한해서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덧입히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동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축복이 구약시대에는 없던 신약시대만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신약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 종말시대라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16장 7절, "….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에서 볼 수 있듯이 구·신약시대의 다리역할을 담당하신 분은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시대와 교회시대라 함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한 말씀에서처럼, 성도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서약)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교회)의 선민(성도)이 되는 새 언약을 받고 전도(선교)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시대와 은혜시대 그리고 종말시대라 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사역을 주후 30년 오순절 날 이후로부터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뒤집어진 것 같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시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시작하여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시대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장 8-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성령님의 역할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다만 권능으로만 역사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진리의 영과 보혜사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만 나타내지 않고, 교사로 의사로 상담가로 변호사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성령님의 증거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이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이 약속으로만 받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시작된 종말' 또는 '종말의 현재화'라고 부릅니다.

둘째, 보혜사는 인성을 지닌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여호와증인이나 단일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 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만일에 성령님이 이단자들의 주장처럼 단지 권능에 불과하다면, 성령님은 성도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사고력이 없는 권능은 그저 가공할 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지성 감성 의지 사회성을 갖고 계십니다.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느끼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인간은 인성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느낌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보혜사'에서 '다른'(allos)은 '다른 종류'가 아닌 '같은 종류'의 또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과 같은 다른 또 한 분의 인격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인격자이십니다. 또 '보혜사'(parakletos)란 '다른 사람 곁으로 불려온 사람'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곁으로 부를 때는 도움을 받자는 데 있고, 초청에 응한 사람은 도움을 주자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혜사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변호사에 해당되고, 질병에 관련해서 볼 때 의사에 해당되고, 인생문제에 관련해서 볼 때 상담가에 해당됩니다. 이들이 인격자들인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의사처럼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고, 귀신들린 자들을 고쳐 주셨고, 변호사처럼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변호하셨고, 상담가처럼 수가성 여인의 인생문제와 니고데모의 신앙문제를 상담하셨습니다. 구조대원처럼 광풍 만난 제자들을 구해 주셨고, 예언자처럼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의사처럼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며, 변호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 상담가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환난과 고통과 죄와 악의 수렁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새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또 예언자처럼 귀 있는 자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들을 교회들에게 선포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안내자처럼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를 도울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처럼 지적 활동, 감성적 활동, 의지적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며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하며, 전지전능하며,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찾는 자의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휘발유와 같습니다. 인생을 자동차로 볼 때, 제힘으로 자동차를 끌면 무겁고 힘에 부쳐 쉽게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휘발유를 채워 엔진파워로 조작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쉽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아무리 먼 길도 즐겁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인생살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선물로 구원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혼자서 잘해 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시고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제40주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
(요 17:1-20)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신 기도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듯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기도문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1-5절)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6-19)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20-2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도하다'는 동사와 '기도'라는 명사가 합쳐서 90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넘는 47번을 누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누가는 다른 어떤 성서저자들보다도 기도생활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누가는 마가나 마태가 보도하지 아니하는 부분인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고(3:21-22),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의 체험(9:28-29)을 갖게 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시작 전에 금식기도(4:1), 병 고친 후에 한적한 곳에서 행하신 자기성찰의 기도(5:16), 제자를 택하기 전에 행하신 철야기도(6:12), 신분(정체성)을 밝히기 전에 행하신 단독기도(9:18),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행하신 준비기도(11:1),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22:32), 겟세마네동산에서 행하신 죽음직전의 기도(22:41-46), 십자가상에서 박해자를 위한 기도(23:34), 그리고 임종 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기도(23:46)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간청의 기도(11:5-13), 끈질긴 기도(18:1-8), 그리고 겸손한 기도(18:9-14)의 중요성을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1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화롭다는 말과 동일시할 뿐 아니라, 이 일로 아들이 아버지를 또한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죽음을 미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2절과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또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희생되는 일이기에 그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에 더욱 큰 가치를 두셨고 이를 가문의 영광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의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것으로 인식하셨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여 주실 것과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실 것(11절)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14

절) 진리로 거룩하여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17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세상이 미워하게 될 것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14-15절).

성경에서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그릇된 가치관과 비기독교인의 왜곡된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 세력은 실제적으로 존립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사는 것이 더 편리하고 행복하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심을 받은 일군들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란 사실과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근거는 그리스도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일에 높은 가치를 매기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모이거나 '하나 되는 일'에 역행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겠으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가치를 둬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이름에 분명한 정체성을 둬야

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이름이요(약 2:7), 오래 전에 예언된 이름이며(사 62:2), 그 예언대로 성취된 이름(행 11:26)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성서시대에 사용된 이름이며 천거된 이름(행 26:28)입니다. 우리는 침례교인(Baptist)도, 감리교인(Methodist)도, 장로교인(Presbyterian)도 아니고, 안식일교인(Adventist)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일 뿐(Christians only)입니다.

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이름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둬야 하며, 이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일에 가치를 둬야 합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마땅하고 옳은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분열은 죄악입니다. 에베소서 4장 4-6절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분이시오,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분이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아닌 것은 분열이요, 분열은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 분열을 염려하시며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41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 17:21-26)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1-23).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일치 여부가 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게 할뿐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분열은 전도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분열 그 자체가 큰 죄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마 23:13)고 하셨는데, 이는 먼저 믿는 자들의 잘못된 행위가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분열을 일치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분열을 죄로 보고, 죄의 값을 죽음으로 봅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분열 또는 단절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분열 또는 단절을 영혼의 죽음, 육체가 영혼에서 분열 또는 단절되는 것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에로 거듭나는 길은 하나님과 일치 또는 연대, 사람과 일치 또는 연대, 자연과 일치 또는 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절을 원수된 관계, 구원을 화목된 관계라고 말합니다.

인간문제의 원인을 불교는 욕심과 집착에서 보고, 유교는 칠정(七情) 곧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수치, 더러움, 그리고 욕심에서 보지만, 기독교는 관계단절에서 봅니다. 관계단절을 죽음으로 보고, 관계회복을 구원으로 봅니다. 다음과 같은 성구들을 잠시만 훑어보시면 대번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롬 5:10-11)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고후 5:18-20)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엡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살전 5:13)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경은 단절에서 죄가 싹트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말

합니다. 역으로 단절로 원수된 관계가 화목으로 회복된 관계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좋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화평이요 기쁨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절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다음의 성구들이 이 부분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일 2: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은 인간들로 하여금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뿐 아니라, 단절된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로 또 행복한 삶의 비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끼리의 관계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나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리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단절은 약속이 깨지는데서 생깁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행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불안과 초조와 죄의식과 수치심이었습니다. 이 같은 감정은 단절의 신호입니다. 사람사이가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불안과 초조와 의심과 미움입니다. 이런 인간의 감정은 넓게 보면 죄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죄의식에서 불안, 초조, 수치심이 생깁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외면하게 되고 대화가 끊깁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이 커지면서 미움으로 바뀝니다. 미움은 자신의 죄책감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구실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처럼 핑계를 일삼게 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탓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듯이 피차에 쓴 뿌리가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이런 분열 관계에서는 중보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열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전도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만듭니다. 성서가 죄의 원인을 단절에서, 구원을 통합에서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고 예수님께서 승천직전에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42주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요 18:1-32)

예수님은 금요일 밤(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 밤새도록 심문을 받으시고 같은 날 아침 일찍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마 26:47-27:56; 막 14:26-15:41; 눅 22:39-23:49; 요 18:1-19:30).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동산에서 체포된 직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밤 12시에서 3시경에, 공회원 앞에서 3시에서 4시경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4시경에, 헤롯 안디바 앞에서 5시경에, 다시 빌라도 총독과 군중 앞에서 아침 7시에서 8시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 8시경에는 상의를 벗긴 채로 등에 살을 찢는 채찍을 맞으셨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형틀에 쓰일 가로대를 짊어지셨고, 기도시간인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역시 기도시간인 12시 정오에 어둠이 내려 오후 3시경 유대인들이 저녁 희생을 드리는 시간까지 지속되었으며, 예수님은 저녁희생제사가 드려지는 바로 그 시각에 운명하심으로써 인류의 화목제물로써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총독부는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예루살렘 서북쪽 약 112㎞지점)에 있었으며,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 디벨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안토니우스 성곽에 주둔하는 로마군과 함께 총독관저가 있었고, 헤롯궁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란이 일기 쉬운 유월절민족행사에 정치적 책임자로서 혹은 행사참여를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 밤새도록 여섯 차례, 곧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각각 한 번씩, 공회원들에게 한번, 헤롯 안디바에게 한번,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두 번 심문을 받으시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동요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지키시며 심문자

들이 오히려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게 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세 번의 심문, 그것도 아랫사람들에게 자유의 몸으로 받은 심문에 세 번 다 예수님을 모르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박해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비두니아(Bithynia)에 111년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소(小) 플리니(Pliny the Younger)는 체포된 기독교인들에게 세 차례 배교할 기회를 준 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을 고집하면 처형토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섯 차례, 곧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각각 한 번씩, 공회원들에게 한번, 헤롯 안디바에게 한번,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두 번 심문을 받으신 것 외에도 요한복음에서만 여섯 번 배교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조가 왔을 때, 그들에게 두 번씩이나 그들이 '네가 나사렛 예수냐?'고 묻기도 전에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18:4,7)고 물으셨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18:5,7)고 했을 때, "내로라"(18:5,8)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조가 오는 것을 아시고도 도망하지도 숨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대담하게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체포조원들이 오히려 화들짝 놀라며 땅바닥에 나자빠졌습니다. 세 번째는 안나스의 심문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18:20-21)고 하셨고,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릴 때에도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18:23)고 담대하게 대응하셨습니다.

로마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세 차례 배교할 기회를 갖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18:33-37)고 세 번이나 물었고, 예수님은 그 때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36-37절)고 담대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38절)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심문자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심문자들을 압도하시고 계실 적에 평상시 매우 용감하고 저돌적이었던 수제자 베드로는 안나스의 아랫사람들의 세 번의 물음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로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17절). 두 번째로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25절). 세 번째로 귀를 베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26절). 이 세 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 세 번의 강한 부인은 베드로의 배교를 확정짓는 것이었고, 그 증거로 닭이 울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시대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침례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세 번의 신앙고백과 세 번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당시 침례는 물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졌고 박해시대였으므로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야 발설치 아니하면 남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 침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침례받기 직전에 행하는 세 번의 신앙고백과 또 세 번의 침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습니다. 두 남녀가 비밀리에 연예할 수는 있어도 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결혼식은 올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식이란 두 남녀의 결합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먼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고 고백한 후에 첫 번째 침수를,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한 후에 두 번째 침수를,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한 후에 세 번째 침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 차례의 신앙선언과 세 차례의 침수세례는 박해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직면했던 세 차례의 배교선언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배교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배교선언을 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나 잘못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배교가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행위지만, 박해시대에는 늘 있어왔던 일들입니다. 주리를 틀리고 치도곤을 맞고 여러 날 먹고 마시지 못하면 믿음이 돈독했던 사람조차도 밀고자나 배교자가 되고 맙니다. 배교는 아주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죄질의 차이에 있지 않고, 회개의 유무에 있었던 것입니다. 살인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으십니다. 죽음 앞에서 비굴해졌던 베드로는 주리를 틀린 것도 아니었고, 치도곤을 맞은 것도 아니었고,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잠을 못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배교는 너무도 나약하고 비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통회함을 받으시고 그의 실수를 용납하셨고 그를 다시 들어 귀히 쓰셨습니다.

제43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 18:33-37)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한 경우, 이 왕은 단순히 어느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는 반드시 왕이어야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왕이었던 적이 없고, 당시에는 유대인에게 왕이 없었으며, 로마총독의 지배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심문을 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첫 질문에 예수님은 "그대는 내가 왕이란 사실을 알고 묻고 있는가?"(34절)라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둘째 물음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36절)라고 하셨고, 셋째 심문에는 "내가 왕이다"(37절)는 확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행위는 안수로써 '구별하여 뽑아서 따로 세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특별히 뽑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뽑을 경우 선지자가 그들의 머리 위에 올리브유를 부어 임직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고(삼상 10:1; 16:12; 왕상 1:45), 사독은 기름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으며(대상 29:22) 또 엘리사도 기름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왕상 19:16).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곧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책을 모두 수행하는 특별한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의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그리스도 곧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될 수 있고, 또 그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하게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은 첫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 18:15), 둘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 4:5), 셋째, 다윗과 같은 왕(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사 11:1-10. 미 5:2, 대하 21:7), 그리고 넷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 110:1-7)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하늘로써 오는 표적"(마 16:1, 막 8:11, 눅 11:16)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늘로써 만나를 내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했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왕상 17:16) 것과 동일한 표적, 곧 예수님께서 보리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광야에서 오천 명이상을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요 6:14)는 반응을 보였고, 지체 없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요 6:15)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들을 복음서 전반부에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로 소개하였습니다.

마태는 복음서 제1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상징인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40대의 족보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가진 명실상부한 왕족이자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올린 40명 가운데 '왕'이란 호칭을 쓴 곳은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마 1:6).

제2장에서는 예언대로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마 2:1), 박사들을 인도한 베들레헴의 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다윗의 별로써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다짜고짜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 2:2)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박사들은 별의 출현을 그리스도 곧 유대왕의 출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베들레헴의 별을 "그의 별"이라 하였고, 이는 그리스도의 별이란 뜻입니다.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마 2:4)고 물은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21장 이하는 요한복음 제12장 이하와 동일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왕으로써 입성하였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중이 성 밖으로 나와서 영접하여 들인 것이나 그들이 연호(連呼)한 "다윗의 자손이여"와 "호산나"(마 21:9, 요 12:13)가 다 그 분이 왕(요 12:13) 곧 그리스도였음을 밝히는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입성과 연관된 예언 성구,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마 21:5, 요 12:15)한 말씀의 소개도 이를 입증합니다. 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평범한 죄수로써 다루지를 못하고 왕인가를 조심스럽게 묻는 심문을 하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마 27:11, 요 18:33-37)한 것이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마 27:29, 요 19:3)한 것, 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마 27:37, 요 19:19) 쓴 패를 붙인 것, 그리고 구경꾼들의 입을 통해서 희롱하는 소리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마 27:42)한 소리들이 다 예수님이 오실 자 왕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자적 의미에서 기름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일컬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문자적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구약성경을 모형과 예시(豫示)의 측면에서 이해하였습니다. 구약성경에 관한 이런 견해차 때문에 신약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고히 믿는 반면,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제국의 압제로부터 풀어주고,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과 다윗 때에 누렸던 영광을 되찾아 줄 정치군사종교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또 친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놓였던 불편함을 제거하는 화목제물로써, 중보자와 구세주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신 대제사장으로서, 또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언자로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로써,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로서(엡 4:6; 골 3:11), 장차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대제사장으로서(히 4:15), 하나님의 숨은 비밀과 구원의 소망을 친히 드러내신 예언자로서 고백되고 있습니다(히 1:1-3).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왕을 모신 자들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요 18:37).

제44주
진리가 무엇이냐?
(요 18:38-40)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38절)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무려 22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하게 볼 것은 이들 22번의 '진리'란 말이 대부분 예수님 또는 예수님과 연관된 단어란 점입니다. 이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적어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거나 기독론 곧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으며, 5장 33절은 ". . .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핵심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곧 우리를 구원에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리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란 뜻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를 알려고 몸부림치던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한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선한목자로 설명한 것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 . .”고 하였고, 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행 4:12)고 설교하였습니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적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뜻합니다.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진리가 충만하신 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만한 진리로 가득하신 분, 이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진리 그 자체이실 뿐 아니라,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1장 17절에서는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통하여)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통하여) 온 것이라.”

셋째,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을 뜻합니다.

8장 40,45,46절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

씀들이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의 번영과 세계지배에 뜻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뜻과 소원에 맞춘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소원과 뜻에 하나님의 뜻을 꿰맞추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는다면, 자칫 하나님의 뜻을 크게 그르칠 수 있다는 교훈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몰랐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재판받게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왕이 아니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18:37)고 대답하셨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18:36)고 하셨습니다. 무지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18:38)고 묻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는 또 다른 무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진리를 모른 채, 더러는 잘못된 곳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더러는 진리 따위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진리로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17-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

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재판…체포~선고까지 위법투성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고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영장 제시도,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예수님은 변호인도 없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재판'은 억지혐의적용, 법적절차를 무시한 재판진행, '마녀사냥'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휘둘린 재판부의 무리한 판결로 점철돼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하려는 기득권층횡포에 의한 것이었다. 기득권층의 계획은 성공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법'을 이용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정성을 잃은 법적용이나 잘못된 판결은 한 사람의 인생 뿐 아니라 국가나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예수에 대한 재판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0/12/18(월) 기사요약>

제45주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더라
(요 19:1-16)

십자가는 중죄인을 처벌하는 사형틀입니다.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처음 이 형틀을 사용한 이래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예수님 때에는 아주 보편적인 처벌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형법은 너무 잔인해서 로마시민권자들에게는 노예나 흉악범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헬라나 로마제국의 압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전쟁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반란죄나 내란음모죄로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패한 성전지도자들에 대항해서 성전을 정화시켜 보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성전 모독죄 및 반란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정죄되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1968년 예루살렘의 기밧트 하미브타르 발굴에서 1세기경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덤의 유골함에는 요하난 벤하콜이란 20대 남자의 유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유골 중에는 매우 굵고 커다란 쇠못이 박혀있는 발뒤꿈치 뼈도 있었습니다. 발뒤꿈치 뼈에 대장장이가 불에 달궈서 망치로 두들겨 만든 굵고 기다란 쇠못이 박혀있었습니다. 이 못에 붙은 나뭇조각들을 살펴본 결과 못이 나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못의 뒤끝이 안쪽으로 구부려져 있었고, 십자가 자체는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은 죄수의 발등이 아니라, 발뒤꿈치 옆 복사뼈 밑에 박혀 있었으며, 아카시아 나뭇조각이 죄수의 발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유골함 속에는 부러진 정강이뼈도 있었습니다. 이 뼈는 죄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살아 있는 죄수를 절명시키기 위해서 큰 나무망치로 쳐서 부러뜨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견된 손과 손목뼈에서는 손바닥이 아닌 손목 위 두 개의 팔뼈 사이에 큰못을 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십

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체중을 지탱시키기 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천년 전에 시행됐던 십자가 처형식을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우선 죄수가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으면, 겉옷과 속옷을 벗긴 채 나무기둥의 허리부분에 양손이 묶입니다. 그러면 죄수의 몸은 기역자 모양이 되고 죄수의 맨살 등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 등을 향해서 로마군인이 날카로운 동물뼈나 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기진할 때까지 때립니다(1절). 이 채찍이 죄수의 몸에 닿을 때마다 피가 튀기고 살점이 도려내집니다. 이 체벌이 끝나면 죄수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형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처형되는 것이어서 가로대를 짊어지기 전에 로마군인들의 희롱이 심하였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손에는 갈대까지 들게 하였습니다(2-5절).

형장(골고다)에 도착하면, 죄수가 짊어지고 온 가로대를 기둥에 맞춥니다. 그리고 땅에 눕혀진 십자가 위에 죄수를 눕힙니다. 죄수의 두발은 세로 기둥의 받침대에 올려지고 차렷 자세 모양으로 두 발을 모읍니다. 이 때의 몸은 바로 눕힌 상태가 아니라 가로로 눕힌 상태가 됩니다. 죄수의 두 발이 세로 기둥에 나란히 모아진 상태에서 복사뼈 바로 밑에다 대못을 박습니다. 굵고 울퉁불퉁한 대못은 두 발의 복사뼈를 관통한 다음 나무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죄수의 상체를 90도 비틀고 무릎을 꿇려서 바로 눕힙니다. 다음에는 끈으로 양 팔목을 가로대에 묶고 양손의 손목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십자가를 세워 고정시킵니다. 상체가 뒤틀리고 무릎이 꿇린 린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산소부족과 호흡곤란으로 큰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급히 죽일 경우에는 앞으로 튀어나온 무릎을 나무망치로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잔인하고 수치스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까요? 첫째, 타락한 종교정치인들의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체포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 신성모독죄(7절), 성전

모독죄(막 14:58, 15:29),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한 국가반란죄(12-15절)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죄가 있었다면, 정치인들과 타협치 않고, 주변부 민중의 친구가 되며,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본 죄뿐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나 구전법에 얽매이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안식일 법을 어기게 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인류의 죄값 때문에 인류를 구원키 위해서 인류를 대신한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그분의 부활로써 입증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뤄진 인류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성령강림으로 밝혀졌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에 세 번씩이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의 장소로 생각했던 정치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갈릴리 지역과 그를 환영하고 인정해준 민중을 떠나서 그를 죽이려하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구원을 희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중의 뜻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께서 인류구원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궁전에 있었고, 민중의 마음은 해방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보이는 예루살렘에 삶의 목표를 세웠고, 개인의 출세와 성공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다 목표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참 예루살렘에 삶의 목표를 세웠고, 개인의 성공과 출세보다는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이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다 목표를 두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뜻을 품고 온 몸으로 희생당하셨을 때에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는 변하여 축복과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찾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이 천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한 때는 예수님을 붙잡아 왕을 삼으려했던 열심당원들까지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빌라도 총독을 윽박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며 법정을 소란케 하였습니다(15절).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구원에 대한 섭리와 계획은 인간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깊은 고독과 고뇌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는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제46주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요 19:17-37)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조롱당하고 매 맞으며 재판받고 버림받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가(王家)인 다윗가문에 태어났으나 가난했고 나사렛 시골 촌에서 목수 일을 배우며 성장하였습니다. 성장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이 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왕도 없던 로마제국의 속주에 태어났으므로 더더욱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지 아니한 생애기간에 결코 왕위에 오른 적이 없는 그가 왕이란 칭호를 얻고, 비록 가시관을 쓰긴 했지만,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신분으로 재판받았으며, 왕이란 명패를 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언뜻 보아서 이 사건은 비극 중의 비극이요, 수모 중의 수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승자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과거 수십 세기에 걸쳐 전 세계 수십억에 이르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어서 떠돌아다니던 젊은 예언자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을 세상에 보낸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수모에도 아랑곳없이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게 심문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러한 비참한 현실에 묶여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평강으로써 지배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한 열정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빌라도 총독이나 그를 죽이려했던 유대인들의 참소하는 외침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승리를 확신하였고, 결국 승자가 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

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자기 십자가가 있게 마련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눅 9:23)고 하셨는데, 이참에 제대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까지 모든 것을 박탈당하신채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지배받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통증을 호소하셨고, 괴롬을 견디기 어려워하셨지만, 챙길 것을 챙기셨습니다. 자신을 결코 상황에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장남으로써의 자신의 책임을 챙기신 일입니다.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로 소개하였지만, 이곳 19장에서는 철저하게 인간다운 너무나 인간다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혹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막 3:35)고 하신 말씀을 악용하여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치 않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까지 자식으로써의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시는 것은 극한의 현실에서도 그 현실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장악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28절)고 하신 말씀은 인간으로써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감추지 아니 하시고 호소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철저하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다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으실 수 있느냐는 것이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른 한편 여호와증인들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아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분뿐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분이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는 신(神)적인 도움이 전혀 없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이런 처절한 순간에서조차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에 짓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상황을 내려다보는 장악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이 사단에게 치명적인 일격이 되었다는 점은 예수님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30절)는 말씀을 마치시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군인이 찌른 창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34절).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찍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공생애시작부터 예수님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짓누르는 짐이 있었는데, 이 짐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실질적인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어찌 잠시 짊어진 나무 십자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애』를 쓴 일본인 소설가 엔도 슈사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의하면 사람들은 30대의 예수를 보고 '50세가 되지도 않았는데'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예수가 나이보다 늙어 보였는지 모른다. 나이보다 늙어 보인 것은 그 면모에 뭐라 할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가 언제나 있었기 때문이며 피로에 지친 눈에는 괴로운 빛이 떠돌고 있었

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자신의 사명이 인류를 구원코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피를 말리는 죽음의 나날이 다가올수록 삶에 대한 강한 욕구가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 때마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동산에서의 기도를 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진정한 왕이 되셨으며, 최후의 승자가 되셨습니다.

제47주
예수님의 가상칠언
(요 19:25-30)

예수님은 A.D. 30년 4월 7일(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6시간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있었습니다. 이 여섯 시간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남겨진 말씀은 일곱 마디입니다. 본문에 실린 세 마디 이외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한 마디, 누가복음에 세 마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실린 세 마디는 모두가 예수님의 육신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 . 보라 네 어머니라. . . 내가 목마르다. . .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23:34-46)에 실린 세 마디는 모두가 기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 .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 .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막 15:34)라는 한 마디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복음서 저자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과 강조점이 달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한정된 지면에 모든 것을 다 소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Logos)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소개하였고,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들과 권위 있는 말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모르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효성스런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었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와 마가가 유일하게 소개한 예수님의 절규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를 소개하지 않고, 그 대신에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 . 목마르다. . . 다 이루었다!"는 말씀만을 기록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생략하고 기록하지 아니한 이유는, 짐작하건대, 사랑하는 어머니를 가장 아꼈던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갈증을 호소하시며 자신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예수님에게 이런 절망적인 절규는 요한복음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을 수집하여 기록하면서 몇 가지 주제들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몇 가지 주제들은 배척, 성령, 기도, 그리고 여행입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정치와 종교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며, 민중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렸고, 그런 와중에서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가야할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가가시는 예수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까지 배신자와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한 강도를 축복하시고,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참으로 감동적인 기도장면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유일하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절망적인 절규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는 아마 누가 당시의 신앙인들이 박해상황에서 울부짖었을 절규와 동일한 것이었을 텐데도 누가가 생략하고 기록하지 아니한 이유는, 짐작하건대, 배신자와 박해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리시고, 강도까지 축복하시고,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예수님에게 이런 절망적인 절규는 누가복음서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신앙인들에게 모

범적인 기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오로지 예수님의 이 절규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이런 절망적인 기도를 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 같은 고통을 각오하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예고(豫告)하였습니다. 가난한 민중을 편들며 그들에게 천국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정치권의 안정을 위협했을 때, 안식일 법을 어겨가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을 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들을 저주받을 놈들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며 유대교전통에 반기를 들었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예루살렘의 가진 자들에게 대항하였을 때, 또 사십육 년째 보수 및 증축되고 있는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며 예루살렘의 성전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사형에 처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민중의 구원과 해방을 위하여 외쳤던 예언자들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왜 절규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호언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나약한 민중들의 배신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버림을 하나님의 버림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나눠서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외마디 절규는 "이렇게 크게 고통당하는 것이 과

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일입니까?"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의 잘잘못을 하나님께 묻고 검토 받고 심판 받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외마디 절규는 문자 그대로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외마디 절규는 아픔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기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입 밖으로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외마디 절규는 출산의 아픔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찌 고통 없이 값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귀한 일인데 어찌 그만한 고통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여섯째, 예수님의 외마디 절규는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이뤄져야 합니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외마디 절규는 하나님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몸짓이자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철길에서 놀고 있던 자식을 구해내기 위해서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듯이 하나님은 우리 못난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절규에서 인간을 구원코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절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48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요 19:38-42)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추종했고 또 목숨까지 바칠 것만 같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을 갔고,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추종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남의 눈을 의식치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한 물품들은 새로 판 굴무덤과 세마포 그리고 34킬로그램 정도의 몰약과 침향이었습니다. 굴무덤 사용료와 세마포 그리고 몰약과 침향의 값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유했다 해도 적지 아니한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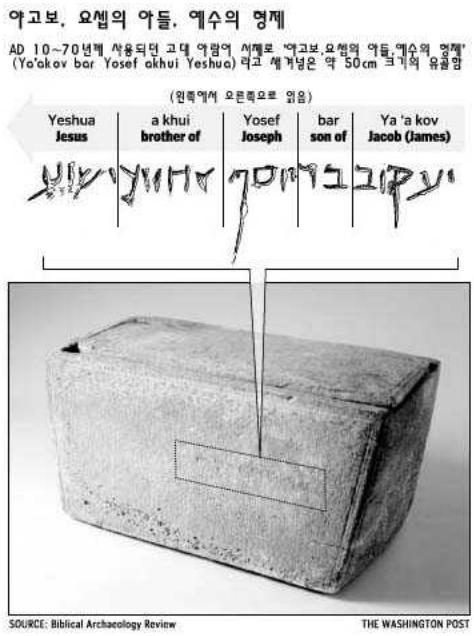
몰약과 침향은 미라(mirra)를 만들거나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부제로 사용되었던 향료들입니다. 이 가운데 몰약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바쳤던 예물들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마태 2:11).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은 제사장 직분을, 몰약은 수난과 죽음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향은 특별히 하나님이 심은 식물로 나타나 있고(민 24:6), 예수님을 제외하면, 성경에서 침향을 사용한 이들은 모두 왕이나 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귀하신 분이었음을 웅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전후해서 각각 1세기씩 약 200년 동안에 유행한 유대인의 장례법은 먼저 시신을 굴무덤에 일년 정도 안치한 다음에 유골을 수습하여 유골함에 보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유골함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장례법은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 장례법이 아니었다면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할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섭리는 팔

레스타인의 기후조건입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건조한 열대성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비에 노출되지 않는 한 썩지 않고 오래도록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써 예수님과 동시대에 죽은 몇몇 사람들의 유골함이 오늘날에도 발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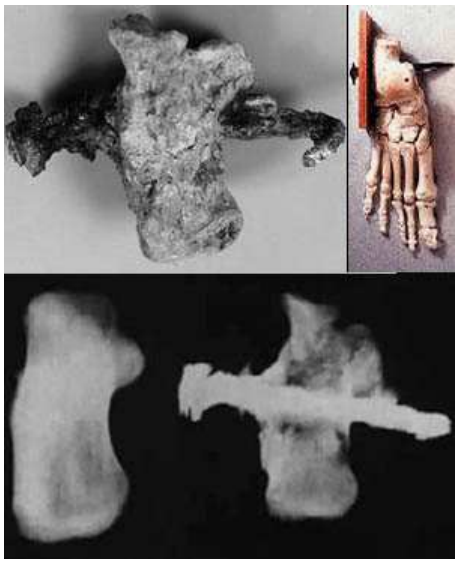
가장 최근에 발견된 유골함으로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2002년 10월 21일 보도한 대로, A.D. 10~70년께 사용되던 고대 아람어 서체로 '야고보, 요셉의 아들, 예수의 형제'(Ya'akov bar Yosef akhui Yeshua)라는 글을 새겨 넣은 길이 약 50㎝ 크기의 유골함이 있습니다. 이 유골함은 예루살렘의 한 동굴에서 도굴된 후 이스라엘의 한 개인 소장자에 의해서 비밀리에 보관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유골함에 새겨진 글의 진위 여부를 분석한 프랑스 소르본대학의 앙드레 르메르(Andre Lemaire) 교수는 "이 석회석 유골함이 B.C. 1세기와 A.D. 1세기께 유대인들이 매장에 사용하던 것과 아주 유사한데다 글의 형태와 서체로 봐서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야고보가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A.D. 63년경에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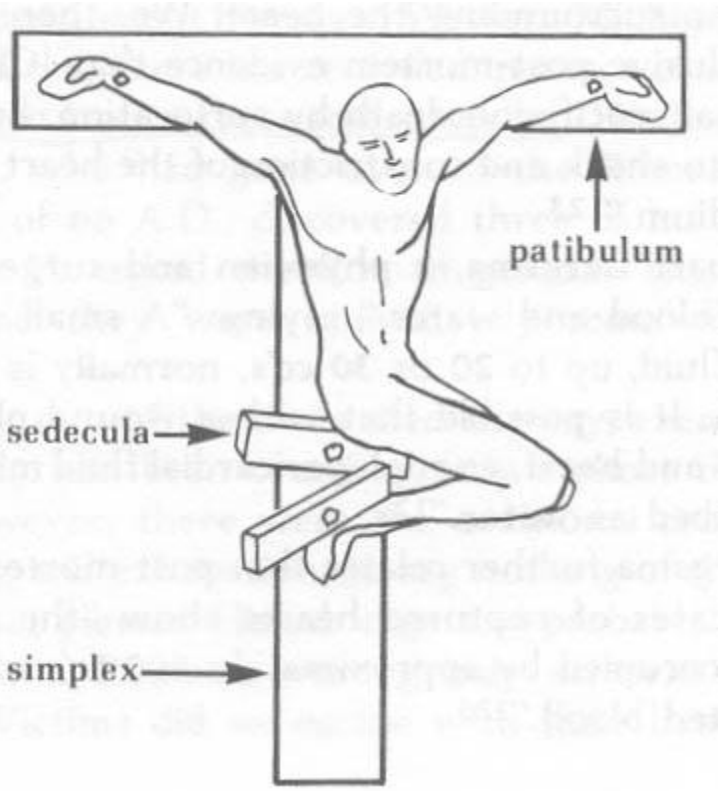
대제사장 가야바의 가족 유골함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약 1세기경의 이 유골함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무덤에서 다른 몇 개의 유골함과 함께 발견되었고, "가야바의 아들 요셉"이란 이

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로써 이 무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토록 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가족무덤이었으며, 이들 유골함 가운데 하나는 가야바 자신의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1968년 6월 예루살렘에서 15개의 석회암 유골함을 발견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 요한난 벤 하콜(7-70년)이라 불리는 무릎이 구부린 채 십자가에 처형된 젊은이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유골함에서는 약 18센티미터 크기의 십자가의 못이 박힌 발뒤꿈치 뼈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쇠못은 현존하는 유일의 십자가의 못입니다. 그의 유골들과 쇠못을 통해서 해부학을 근거로 그린 십자가형의 모습은 옆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형은 사형수의 몸을 90도 비틀어 나무에 묶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목과 복숭아 뼈 바로 아래에 쇠못을 박아 처형하는 극형입니다. 이 상태에서 몸이 팔에 매달려 있게 되면, 가슴근육이 마비되고, 늑간근육이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공기가 폐로 유입은 되지만, 밖으로 내뿜어내 질 수 없게 되어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류에 쌓이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어 상체를 세우려 할 것입니다. 급히 죽여야 할 경우에는 사형수의 무릎 뼈를 나무망치로 타격하여 부러뜨립니다. 무릎 뼈가 부러진 죄수는 몸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없게 되어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어깨에 지시고 골고다로 가져간 십자가 형틀의 가로대(patibulum)의 무게는 약 50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patibulum
sedecula
simplex

제49주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는 교훈
(요 20:1-10)

무덤은 사단의 부정의 결과, 예수님의 빈 무덤은 하나님의 긍정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사단의 'No'의 결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Yes'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부활을 사단의 'No'에 대한 하나님의 'Yes'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고 긍정합니다. 무덤에 갇힌 자는 영원히 그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무덤을 박차고 밝은 세계로 나올 수 있다고 긍정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긍정합니다. 낮은 자는 높아질 수 없고 높은 자만이 영원히 높다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높은 자는 낮아 질 것이요 낮은 자는 높아진다고 긍정합니다. 가난한 자는 무시당하고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먼저 된 자는 영원히 먼저 되고 나중 된 자는 영원히 꼴찌가 된다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긍정합니다. 높은 산은 항상 높고 낮은 골짜기는 항상 낮다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높아지는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긍정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부정에 빠져들면 그 자체가 죽음이요 무덤이지만, 하나님의 긍정에 뛰어들면 그 자체가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끝없이 무덤에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상과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썩고 냄새나고 눅눅하고 어두운 무덤 속에 가두

려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정신과 영혼까지도 썩고 냄새나는 어두운 무덤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 인간을 부정과 비관과 허무와 죽음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시기와 질투와 중상과 모략과 사치와 낭비와 교만과 허세에 빠뜨려 폐쇄된 공간인 무덤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들면, 겉모습은 화려할는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썩고 병들어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마 23:27)고 했습니다.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해도 그 속에는 썩고 냄새나는 시체뿐인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겉모습이 좋고 훌륭해 보여도 그 속에 있는 것이 썩고 냄새나고 폐쇄적이고 율법적인 것이면 무덤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학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고, 민중을 위함이 없고, 하나님을 위함이 없고, 공평함이 없고, 구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딤후 3:5). 그들은 율법이란 폐쇄된 무덤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도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무덤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유롭고 복음적인 정신과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상마저도 썩고 냄새나는 무덤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무덤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세마포로 꽁꽁 싸고 묶어서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온유한 자들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과 긍휼히 여기는 자들과 마음이 청결한 자들과 화평케 하는 자들을 편들며, 그들에게 복을 비는 예수님을 폐쇄되고 생명이 없는 무덤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세리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폐쇄적이고 편협한 율법풀이

로 불쌍한 민중을 옭아매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며, 성전 뜰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놓은 사두개파들에게 도전하며, 진정으로 인간에게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줄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무덤에 가두고 장정 20명이라도 굴릴 수 없는 무게가 무려 1.5~2톤이나 되는 큰 돌로 입구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대 최고였던 로마군인들로 하여금 보초까지 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중한 돌문을 열어젖히고 육신을 옭아맸던 세마포를 벗어 던진 채 그 냄새나고 폐쇄된 죽음의 공간을 벗어나 생명에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그분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세마포가 그분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의가 그분을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 무덤만을 남긴 채 무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몸을 꽁꽁 묶었던 죽음의 오랏줄 세마포를 풀어 던진 채 무덤을 탈출하여 밝은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이자 정치적 술수와 비방과 비교가 난무하는 죽음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 민중의 삶의 터전이자 새 출발의 장소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새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곳은 비록 가난과 억압에 시달린 민중의 한이 서린 곳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천국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무덤에서 빼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수많은 빈 무덤의 출발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의 새아침은 수많은 새아침의 출발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의 새 출발은 수많은 새 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무덤을 벗어나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도 죽음과 죄악과 구습의 세마포를 풀어버리고 하늘에 오른 예수님처럼 하늘에 오르는 변화된 사람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사단은 인간들을 회칠한 무덤에 가두려고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썩고 냄새나는 무덤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이 목적을 위해서 지식인들을 동원합니다. 사단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법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타락한 자연법칙을 수호하며, 인간의 죽음을 자연법칙의 하나로 수용합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물론에 기초한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의 힘의 논리를 신봉하며, 인간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우주가 폐쇄된 인과법칙의 사슬에 매어 숙명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이며, 하나님은 이 우주 어느 구석에도 없고, 인간사(人間事)에 개입할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인간을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하며, 죽음은 자연스런 것이어서 부활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무덤에 가두는 사람들은 결단코 빈 무덤을 남길 수 없으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옭아매는 세마포를 풀어버리고 썩고 냄새나고 어두운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사는 창조주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부정(No)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긍정(Yes)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제50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요 20:11-18)

요한복음 20장에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안식 후 첫날"(1,19,26절)이란 말이고, 둘째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17절)이고, 셋째가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22-23절)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하신 말씀입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굴무덤 속에 계신 것은 대략 38-40시간(첫날 금요일 3시간, 둘째 날 안식일 24시간, 셋째 날 일요일 11시간)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은 죽음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일요일 이른 아침에 동녘의 햇살을 받으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부활의 날인 일요일(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주님의 날'(주일)이라 칭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들이 한 곳에 모인 날은 모두가 '주님의 날'인 '안식 후 첫날'이었고, 그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아침에 마리아는 무덤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16-17절). 그리고 이날 저녁모임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19절). 그리고 일주일 후인 또 다른 주님의 날에 도마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후 초대교회들은 이 주님의 날에 모임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행 20:7; 고전 16:2; 계 1:10).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17절). 이 말씀은 3장 16절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에 비춰볼 때,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장 16절의 '독생자' 예수님이 20장 17절에서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외아들대신에 '맏아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외아들'은 아들이 한 명뿐이란 뜻이지만, '맏아들'은 다수의 아들 가운데 맏이란 뜻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라.

이들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된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며, 우리 주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된 양자와 양녀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맏형제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조선시대에 첩의 자식들은 서자라 하여 좌족(左族), 반사(半士), 사점박이 등으로 천대받고 과거도 보지 못하고 제사에서도 소외 받으며 가계(家系)상속에서도 소외 받기가 다반사였습니다. 19세기 초에 천주교 신자가 비신자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컸던 고충이 다름 아닌 양반상놈, 적자서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은 계급으로 인식하는 기독교의 평등사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천당은 좁고 입구도 바늘구멍 같다던데 어떻게 상놈이나 서자가 또 미천한 계집이 들어갈 틈이 있겠느냐는 것이 믿음을 외면하는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동원된 선교도구가 바로 프랑스 신부들이 신고 들어온 양말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지극히 공평한 것으로써 그 앞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지아비도 지어미도 또 어른도 아이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양말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그 어느 누구의 발에도 신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라고 양말을 신겨만 보이면 손쉽게 깨닫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1839년에 순교(殉教)한 베드로 신대보(神大輔)가 샤스탕 신부에게 부친 편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서자들은 제 아비를 "아버지!"하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롬 8:15)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 6:9) 하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서자처럼 차별받지 아니하고, 지극히 사랑스런 자녀로 대우받습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죽일지언정 우리는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천지에 이만한 아버지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양자와 양녀에게 상속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호적을 파내어 버리는 세상인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듯이 드러난 부분보다 숨겨진 부분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22-23절)한 말씀은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때의 일은 엘리야가 승천을 앞두고 엘리사를 제자로 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임직할 때에 갑절의 성령의 은사로 부으시고 이임하셨던 일과 같습니다(열하 2:9-11).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사도직에 임직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사죄권으로 덧입히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연 오순절 날의 성령님의 강림은 이날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에 있었습니다. 사도직 임직 때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에서 성령은 사도직수행에 필요한 능력 또는 은사를 말씀하신 것이고,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님은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내주동거하시는 임마누엘 곧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의 저자는 기록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제51주
예수부활의 증거
(요 20:19-31)

예수님은 삼년 육 개월의 짧은 고난과 배척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A.D. 30년 4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경부터 주일 이른 아침까지 약 40 시간 정도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마 27:57-66; 막 15:38-47; 눅 23:45-56; 요 19:31-42). 그리고 4월 9일 주일아침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마 28:1-8; 막 16:1-8; 눅 24:1-8; 요 20:1).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보이셨습니다.

예수부활은 기독교가 시작된 출발점이며, 기독교가 가르치는 알맹이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고,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부활은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수부활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서 기독교의 진실성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예수부활을 유물이나 문헌연구를 통해서 입증하는 고증학 방식으로 입증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신빙성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교회 안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 정황증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부활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진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부활의 진실성 여부는 믿음의 문제이지 결코 과학적인 입증의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듯이,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부활의 일차적 증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부활이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발생된다면, 그것이 과학적 사실

은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예수부활의 독특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독특성도 상실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존재하시면서 범죄자들을 즉시 처벌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종교도 법도 필요 없게 되고, 과학도 학문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부활의 직접증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열 한번이나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목격한 사람의 수가 오백 명도 넘습니다.

(2)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빈 무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동굴무덤이었습니다. 입구를 무거운 돌문으로 막고 진흙을 이겨 틈새를 봉한 후에 진흙에 관인을 찍어 당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시신을 훔쳐갈 수 없도록 당대 최고였던 로마군인들이 4교대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인은 떨어져 나갔고, 돌문은 열려 있었으며, 무덤 속에는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만 남아 있고, 시신은 무덤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예수님은 바위를 뚫어 만든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동굴무덤은 대개가 성인이 허리를 약간 구부려야 들어 갈 수 있는 130-150㎝ 높이의 입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본실이 있고, 입구를 제외한 본실 삼면의 벽에는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깎아 만든 평상들이 있었는데 머리를 두는 쪽은 베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두툼하게 높여 만들곤 했습니다.

(4)무덤의 입구는 큰 돌을 원판으로 깎아서 막았습니다. 입구의 문턱은 돌문을 끼어 넣고 좌우로 굴릴 수 있도록 홈을 파놓았습니다. 이 때의 홈통은 무덤 입구 쪽을 낮은 쪽으로 해서 약간 경사지게 파고, 그 대신 돌문이 정확하게 입구를 막고 설 수 있도록 낮은 쪽의 턱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입구를 봉할 때는 돌문을 괴고 있던 받침목을 빼내고 밀기만 하면 홈통의 낮은 쪽으로 돌문이 굴러 쉽게 입

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문을 열고자 할 때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돌문의 무게는,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교수들이 측량한 바에 따르면, 무려 1.5톤 내지 2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돌문을 홈통에서 경사가 높은 쪽으로 밀어 올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베자 성경 마가복음 16장 4절에 따르면,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가로 속에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누인 후 장정 20명이 굴릴 수 없는 돌로 무덤을 막았다."고 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돌문이 열려진 채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5)예수님의 무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로마군인 16명이 4명씩 일 개조가 되어 4교대로 지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대의 로마 군인들은 천하를 통일한 제국의 군인답게 가장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마 28:2-4)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부활의 정황증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정황증거들은 기독교가 지난 이 천년 동안 지켜온 주일예배, 성만찬과 침례, 그리고 변화된 초기 신자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주일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확실한 정황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늘로 두 번 깁거나 두 글자를 쓰지 않았으며 불을 끄거나 켜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던 초대교회가 이 안식일을 무시해 버리고 일요일을 지킨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가친척과 국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버림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데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 곧 '주일'이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일예배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독교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부활과 같은 사건이 아니고서는 유대인으로써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될 수 없으며, 안식일을 무시하고 주일예배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순교를 불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확실한 정황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과 실의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갑작스런 변화가 찾아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사두개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도 다메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평생을 복음전도에 힘쓰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서른아홉 대의 곤장을 다섯 번 이상 맞았고, 돌로 몰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아 난 적이 있으며, 말년에는 체포되어 네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제 각기 다른 나라들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이상의 몇 가지 정황증거들(circumstantial evidences)만 가지고도 예수부활의 역사성을 충분히 입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증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입증을 잘한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제52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21:1-25)

베드로에게 있어서 A.D. 30년 4월 한 달은 정말 잔인한 달이었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고간 한 달이었습니다. 4월 1일 베다니 마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던 일, 2일, 예수님께서 나귀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민중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던 일, 그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성이 온통 시끄럽던 일, 3일, 성전에 들어가시어 위엄과 권위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던 일,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셨던 일, 4일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하셨고, 종말에 관한 비유들을 들려주셨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는 생각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고,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란 부푼 꿈으로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 유월절 식사 중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또 식후에 포도주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일, 그리고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과 헤롯 안디바와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던 일, 그리고 9일 일요일 아침 극적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쳤던 일, 곧이어 세 번을 게집 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일련의 일들이 베드로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몇 차례 그에게 나타나셨다 해도 여전히 그에게는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좇았고, 앞만 보고 달려갔지만, 얻은 것이라곤 패배감과 비열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뿐이었을 것입니다.

이쯤해서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본업인 고기잡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것도 얻질 못했고 허탕 치는 수고만을 거듭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던지는 그물을 고기들은 피해갔고, 베드로의 가슴은 텅 빈 그의 배만큼이나 허전하였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베드로의 삶은 고달픔과 쓸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때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날도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모닥불을 피어놓고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포기상태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뭘 좀 잡았소?"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고기 사러 나온 마을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세요, 그러시면 배 오른 편에 그물을 내려 보세요. 고기가 잡힐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끌어올릴 수 없으리만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때서야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려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진심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아침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기에는 너무도 여리고 약해진 베드로의 모습 때

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도 인간적인 베드로의 본래의 모습에 맞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이름을 쓰셨습니다.

이 이름에는 그 어떤 가식도 허례와 허식도 없습니다. 사장님이니, 박사님이니, 목사님이니, 장로님이니, 권사님이니 하는 그런 가식적인 이름이 아니라, 개똥아, 철수야, 순이야 하는 식의 적나라한 이름을 부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돈으로 치장한 가식적이고 허식뿐인 그런 이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는 순수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4월 한 달 동안 쓰리고 아픈 경험들을 많이 겪었고, 상하고 깨진 심령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것도 속일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였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바위라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소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17절에 예수님은 세 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처음 두 번의 물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 곧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의 뜻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 번 다 필레오의 사랑 곧 친구로써의 사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예,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고 큰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마 26:33).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노라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요 13:37). 그러니 감히 어떻게 배신자였던 자가 "예, 내가 주님을 다른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아신 예수님은 세 번째 물음에서는 그러면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고 물으셨고,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말씀하셨

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최상급을 쓰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곧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동호회 회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들, 곧 너의 직장보다, 너의 재산보다, 너의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심지어는 일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게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977년 8월 한 달간 선교센터에서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과 함께 대학원과정의 선교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말레이시아 학생으로부터 배운 노래가 생각납니다.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표지그림소개]

「빛과 생명의 십자가」 조각가 김효숙님의 작품.

우리가 십자가가 하면 흔히 죽음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십자가는 복음의 특징인 플러스표식이며, 고난 후에 얻게 될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표식이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표식이다. 이런 모든 뜻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빛과생명의 십자가」이다.

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의 패인자국은 못 박혔던 자국과 창으로 찔렸던 자국이다. 그리고 양손과 발 모양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비둘기처럼 빛의 세계로 날아오르는 모습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몸짓이다. 그리고 머리의 패인자국들은 가시관과 면류관의 상징이며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부분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참모습이다.

김효숙님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셨고,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조형학부 조각과에서 연구하셨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강사와 한국여류조각가협회장을 역임하셨고, 만드신 작품들 가운데는 국립현대미술관(과천), 한국문예진흥원(서울 동숭동), 한국무역센타(서울 삼성동), 호암미술관(용인), KBS홀(서울 여의도), 숭실대학교(서울 상도동), 국회의원공원(서울 여의도) 등에 전시되고 있다.